

#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한계

공 백

## I. 서 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빈곤은 사회복지의 가장 핵심적 쟁점(issues)이다. 인간의 문명사 이래로 빈곤은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혀 온 숙제였으며,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곤란은 계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자본제 사회에서 빈곤은 거의 모든 사회문제에 원천일 정도로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장애(障害)가 되고 있다. 인류가 평등과 지속적인 부의 축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 시킬수록 빈곤은 더욱 커져만 갔다.

사회복지는 행복을 위한 인간 삶의 지향점인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통합의 수단이 된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근본적 과제가 빈곤과의 투쟁일 수밖에 없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 즉, 빈곤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 사회의 기본전제가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생존권 보장을 통한 생활의 보호와 지원에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최저 생활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그 이하의 소득이 있는 계층에게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 등을 통해서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을 복지의 중요한 역할로 삼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자신의 역량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데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논쟁 이후 등장한 신보수주의는 빈곤계층에게 선별적이며 노동 지향적(workfare)이며 사적 책임

을 강조하여 일에 대한 유인가를 제공하는 한편, 복지수혜안전망(safety net of welfare benefits)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축소함으로써 당근과 채찍의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재편성과 복지수혜범위의 축소 등에 대한 논란은 많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의 하나는 더 이상 자본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외적 자원에 의존하는 것은 빈곤을 고착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수혜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상당수의 노동인력을 비생산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라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복지적 시각의 변화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빈곤계층이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성원으로 역할과 기여하도록 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은 새로운 정부에서 복지구현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회 각 계층이 복지수혜자인 동시에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참여복지와 이전 정부의 복지지표로 삼은 생산적 복지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소자녀(少子女)또는 무자녀(無子女)가정의 증가와 고령사회로의 진입, 그리고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요구 등의 사회적 흐름은 사회복지의 효율성과 생산적 능력 즉 자립의 개념을 재강조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자립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독립성을 말한다. 나아가 자신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립의 개념은 생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하는 경제적 자조부터 정서와 심리적인 독립까지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빈곤계층 청소년은 상당부분 빈곤의 문제가 수동적으로 주어진 환경의 문제라는 데서 단순히 현재에 기초한

경제적 자립지원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나아가 청소년의 시기적 특성과 미래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면을 고려할 때 현재와 미래의 자립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은 위한 복지지원은 현재의 자립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립능력개발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가 구호적(remedial)기능과 예방적(preventive)기능에서 국가발전의 목표달성을 위해 변화촉진자(change agent)로서 인력양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개발기능(developmental function)까지 포괄하는 적극적 사회흐름에도 부합한다. 앞서 언급한 바, 이미 대다수의 복지지향 국가가 복지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대상에게도 능력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은 새로운 복지이념과 방법 그리고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인력개발요소를 을 탐색하는데도 많은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아래 본 연구는 빈곤계층 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해 적용가능하고 효율적인 자립지원 정책의 방향과 시대환경에 적합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반 청소년의 자립능력 제고 방안 모색에 함의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청소년을 위한 자립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능력개발 방법을 조망하고자 하는데 있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문헌과 실태 중심의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빈곤계층 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들 청소년의 자립능력 개발에 따른 복지적 관점을 논의한다.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이 사회의 각 부문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대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빈곤계층 청소년에 대한 면담을 통해 그들의 욕구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빈곤계층 청소년과 관련된 실제적 자립지원정책 프로그램인 자립지원시설의 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에 필요한 복지지원 요소들을 도출하여 현실에 적합한 자립능력개발 복지지원 정책을 방향과 방안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i. 빈곤계층 청소년의 성격과 특징은 무엇인가?
- ii. 빈곤계층 청소년과 관련된 자립기회와 자립지원 시설 등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가?
- iii 빈곤계층 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iii-1 : 제도적 측면  
빈곤계층 청소년 인력개발과 빈곤 가정 등에 대한 제도 및 운용방안
  - iii-2 : 정책적 측면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심리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 iii-3 : 실천적 측면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 노동, 교육, 문화, 활동지원의 연계와 전달 및 통합 방향과 방법

## 3. 연구 방법 및 한계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더불어 빈곤계층 청소년의 욕구와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실태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한다.

먼저 문헌연구에서는 빈곤계층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자립지원에 관한 복지적 의미를 고찰하였고 특히 빈곤계층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두 부류의 빈곤계층 6명씩 청소년 12명을 선정하여 면접을 실시하며, 그 내용은 빈곤계층 청소년이 가정의 빈곤결과로 겪는 문제와 욕구, 학교 및 사회생활 실태와 자립지원에 필요한 요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복지적 지원의 실증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립지원시설에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전국의 자립지원시설로 10개 시설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빈곤계층 청소년의 범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청소년연령과 빈곤의 일반적 범위를 설정하였지만, 정확한 통계치를 근간으로 한 빈곤계층 설정이 아니고, 청소년연령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연령범위가 아니라는 데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나 이에 기초한 자립지원체계와 정책적 제언이 빈곤한 계층의 청소년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둘째,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립능력지원방안과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빈곤계층 청소년의 일부가 접근하는 자립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실태와 복지적 지원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전체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동일한 정책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함의를 갖는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체계구축과 정책적 제언은 앞서 언급한 빈곤계층 청소년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자립지원시설에 조사의 한계에 의해서 치밀한 관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빈곤계층이라는 특정한 청소년 계층에 대한 기존 연구 자료와 제한적이지만 빈곤계층 청소년의 특성과 구체적인 지원체계인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빈곤계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의 방향과 의미를 재조명하는 한편, 정책적 제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실증적 정책 자료로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빈곤
2. 빈곤계층 청소년의 개념과 특징
3. 빈곤계층 청소년의 생활실태
4. 빈곤계층 청소년과 자립능력개발

공 백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과 빈곤

#### 1) 빈곤의 개념

빈곤 또는 가난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곤란이나 물질적 결핍의 상태를 말한다. 즉, 빈곤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욕구(need)가 충분히 만족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이두호 외, 1991 : 42). 전통적으로 빈곤은 물질적 필요에 대하여 결핍과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빈곤의 개념을 정의할 때 물질적인 부족을 넘어서 교육, 의료, 사회적 기회, 불평등의 사회 조건과 자원의 비물질적인 요소의 결핍상태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박용순, 2001 : 25. 참고). 기아나 영양실조를 경험하고 있지 않더라도 비물질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생활에 위협받을 때, 그 개인은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임희섭, 1979 : 71). 그런데 빈곤의 개념에 생활에 있어 비물질적 요소의 결핍이나 부족을 포함시킬 때 빈곤의 상대적 개념은 특별히 부각된다.

오늘날의 빈곤개념은 주로 의식주의 기초적 생활물자, 생리적 필수품의 결핍만이 아닌 ‘그 사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관습화되어 있는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小食囊二, 1962 : 104). 빈곤개념에 있어 비물질적 요소인 문화적 생활에 포함하는 것으로 빈곤의 정의가 일반화되고 있다. 여기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부의 분배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빈곤이 경제적 궁핍이라는

측면과 불평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전자를 강조하는 절대적 빈곤과는 달리 상대적 빈곤의 개념은 후자를 강조한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평균소득 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정의한다(권순원 외, 1993 : 17).<sup>1)</sup>

이러한 정의 등에 따르면 오늘날 빈곤의 개념은 빈곤선(poverty line)이하의 자산과 소득을 갖는 계층뿐만 아니라 의료와 주거의 열악성 등 기본생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핍과 아울러 소득의 불평등, 그리고 소득 획득의 기회불균형 및 자존감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에 까지 확장되고 있다.

## 2) 빈곤의 원인

빈곤의 원인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빈곤의 원인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구조적 수준에서 분석한다. Galbraith (1962 : 262-267)는 빈곤의 원인을 두 가지 유형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는 산업사회에서 빈곤을 개별빈곤(case poverty)과 지역빈곤(insular poverty)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별빈곤은 빈곤이 가

1) 사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빈곤을 설명할 때도 어려운 현상에 부딪힌다. 사람 1, 2가 있다고 하자. 이때 사람1은 2보다 약간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는 신장질환을 앓고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투석기를 이용해야 하므로 1보다 생활을 결핍하게 만드는 요인을 많이 안고 있다. 둘 중 누가 더 가난한가, 소득이 낮기 때문에 1이 더 가난한가, 아니면 능력집합이 좀더 제한되기 때문에 2가 가난한가. 실제로 '빈곤'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중요한 평가대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빈곤을 정의하는가는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맥락 속에서 어느 정도 실제적인 의미를 안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실질적인 쟁점을 갖게 된다. 빈곤이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이 개념의 본질을 제한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빈곤을 규정할 수 없다(이상호·이덕재 역, 1999 : 192-193).

난한자의 개별적 특성에서 기인된다고 보며, 정서적 결함, 나쁜 건강, 생활의 무능력, 과다출산, 알코올중독, 낮은 교육수준 등의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로 본다. 한편, 지역빈곤은 빈곤이 산업사회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대규모적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본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 Zimbalist(1977)는 빈곤의 원인을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으로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관적 요인은 빈곤이 개인의 낮은 성취동기와 열망수준, 나태, 의타심, 무절제, 도박, 부적응 등 순수한 개인적 결함과 무유산(無遺産), 남편과의 사별, 불구, 질병 등의 가족적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보며, 둘째, 객관적 요인은 빈곤의 원인이 실업, 사업실패, 이동, 자녀교육의 소홀, 낮은 수준의 교육, 복지, 복지의식과 정책의 부재, 미온적인 국가개입 등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본다(박용순, 2001 : 29. 재인용).

사실 빈곤의 원인은 개인과 사회구조 중 단일한 요인으로 귀인(歸因)시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빈곤의 결과가 다양한 문제를 빚어내는 것처럼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빈곤의 원인도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구조가 함께 엮여낸 문제이기 때문이다. 흔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의 부족을 빈곤으로 직접적 원인으로 이해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소득 부족의 원인이 개인적 결함인지, 사회구조적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더욱이 빈곤의 원인과 불평등의 결과를 동시에 고려할 때는 결과마저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사업이 실패하고 이로 인해 자녀교육이 소홀해지며 그에 대한 복지혜택을 많은 부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개인적인 노력이 주어진 여건 이상으로 발휘되었다면 빈곤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한편 게으르고 가족과 주위 환경으로부터 질 좋은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사별로 인해 유산 등을 받아 빈곤하지 않은 예 등 빈곤이 단일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불평등의 결과를 상정할 때 빈곤은 매우 복합적인 요인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 3) 청소년과 빈곤

청소년에게 있어 빈곤은 한편으로는 성인들 보다 더욱 심각하고 과중한 삶의 과제인 동시에 도전이다. 빈곤의 책임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어른보다 청소년이 빈곤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압박이나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지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겪는 고통을 생각할 때 그 파장은 크다. 동시에 청소년에게 빈곤은 그들에게 장차 성인이 되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습득하는데 제한을 가져옴으로써 청소년기부터 암울한 미래를 상정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엄밀히 말한다면 어떠한 빈곤이든 청소년의 책임은 아니다. 빈곤계층 청소년은 빈곤의 실제적 현상을 나타내는 말일 뿐 빈곤의 원인과 책임을 설명하는 용어는 아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동적으로 물려받은 유산 또는 생활양식 중의 하나가 빈곤이다. 이러한 빈곤은 청소년에게 발달에 많은 불리함과 생활상의 제약을 가져다준다. 다시 말해 빈곤계층 청소년은 다중적인 불리함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들은 빈곤으로 인해 현재 만족한 생활상태를 향유하고 유지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으며, 미래의 생활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발달과제를 성취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급격한 신체변화를 일으키는 청소년기에 빈곤으로 인한 영양결핍은 당장의 건강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인으로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며,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은 갖가지 잠재적 질병을 보유하게 되는 원인(遠因)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질병의 부적절한 치료는 삶의 희망마저 앗아갈 수 있다. 또한 빈곤은 다양하고 긍정적인 사회경험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관계와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올바른 자아정체감과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친사회적(pro-social)태도와 행동을 형성하는데 장애를 줌으로써 성인에 되어서 원활한 사회적응을 하는데 곤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에게 빈곤은 다의적 또는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일정 정도의 빈곤은 청소년발달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즉, 빈곤이 가져다주는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사회환경적으로 불리한 여건은 청소년에게 자극을 주어 도전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더욱 높은 성취동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의 빈곤은 삶의 동인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청소년에게 빈곤은 여전히 매우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확률이 높다. 앞서 언급한대로 대부분의 청소년빈곤은 가정의 빈곤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사회적 발달과업과 요구가 많은 청소년기에 빈곤으로 인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는 청소년에게 건강한 신체발달, 사회성원으로서의 역할정립, 자아정체감의 수립, 대인관계의 성숙한 형성, 경제적 자립능력 등 청소년인 동시에 미래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빈곤계층 청소년을 곤란한 처지로 몰아넣는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일부 청소년에게 빈곤은 현재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짓는 강력한 도전인 동시에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결국 청소년에게 빈곤은 미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 삶을 유지하고 영위하는데 치명적인 고통이 될 수 있다. 사실 적절한 소득은 이와 같은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이다.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소득은 많은 부분 가정의 소득회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정의 소득 결핍과 부족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단일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만은 않다. 빈곤은 다양한 결과를 빚어낸다. 따라서 가정의 소득이 빈곤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해서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영양결핍, 가족갈등, 가출, 범죄, 청소년기 발달과업 성취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수는 없다. 특히 가정 소득의 회복으로 비록 현재의 삶을 어느 정도 개선하고 복구할 수 있어도 청소년들의 미래를 상징할 때 잠재 또는 표출된 적지 않은 부정적인 빈곤 상황의 내재화 및 심리적 고통 등의 문제해결은 쉽지 않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있어 빈곤은 성인에게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개인 및 사회적 장애가 된다.

따라서 빈곤계층 청소년은 현재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장차 빈곤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역할을 학습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 2. 빈곤계층 청소년의 개념과 특징<sup>2)</sup>

### 1) 빈곤계층 청소년의 개념

빈곤계층 청소년은 빈곤계층이라는 개념과 청소년이라는 개념

2) 이 절에서 빈곤계층 청소년의 개념의 상당부분은 노혁(1997)의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지원정책 연구"의 일부를 재구조화한 것임.



이 결합된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에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빈곤가정에 속한 청소년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 첫째 개념인, 빈곤계층을 식별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에서 이용되는 것은 빈곤선인데, 이를 결정하는 데에는 절대적, 상대적 그리고 법적·행정적 기준 등이 사용될 수 있다(권순원 외, 1993 : 16). 이 중 일반적으로 가장 명확한 빈곤선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한 법적 기준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빈곤계층(저소득층)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를 포함할 수 있다.

〈표 II-1〉 200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03(월/원) | 355,774 | 589,219 | 810,431 | 1,019,411 | 1,159,070 | 1,307,904 |
| 2002(월/원) | 345,412 | 572,058 | 786,827 | 989,719   | 1,125,311 | 1,269,809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148,834원씩 증가(7인 가구 1,456,738원 등)

※ 2003년도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2001년 12월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698,075가구이다. 수급대상 가정의 총 수급대상자는 1,419,995명이다. 이를 12세~18세까지의 청소년의 비율을 전체 한 가정 당 청소년 인구를 대비하여 추산하여 보면 약 452천 명 정도이다.<sup>3)</sup> 이들 가정은 <표 II-1>과 같이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된 최저생

3) 기초생활수급대상 청소년수(12세-18세)는 총 수급대상자 1,419,995명 X 0.31(총인구 중 0세-18세에서 12세-18세까지의 비율) + {12,080(중등학교 이상 소년소녀가장수)} = 452,278명으로 개략적 추정은 가능하나, 이 추정에는 가구당 자녀비율의 편차 그리고 시설수급자에서의 청소년비율 등 많은 부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을 경우 차액분 만큼 보조하여 국민으로서 기초적인 생활을 하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대상자로만 빈곤계층을 한정할 수 없다. 실제 우리생활에서 수급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의료비 등의 과다지출로 갖가지 어려움을 겪는 노동능력이 있는 차상위 빈곤 계층이 상당히 분포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의 하나는 절대적인 빈곤이외에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빈곤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빈곤계층은 절대적인 생활비의 액수로 인해 빈곤을 경험하기 보다는 상대적인 경제적 박탈감으로 인해 빈곤을 체감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수급대상 및 차상위 빈곤계층 등으로만 한정하여 이 계층에 속한 청소년을 빈곤계층 청소년이라고 선을 긋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자원 중에서 소득의 부족이 상대적 빈곤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Townsend(1979)가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의 개념으로 빈곤을 정의한 이래 소득 이외의 면들도 고려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준거가 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통상적인 생활양태(style of living)를 누리지 못할 때 그것을 빈곤한 것으로 간주한다(이두호 외, 1991 : 54-55. 재인용).

이러한 상대적 박탈개념은 빈곤계층 청소년과 관련하여 더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빈곤계층 청소년은 빈곤한 성인과 달리 빈곤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가 아니라 빈곤의 피해자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빈곤계층 청소년을 규정할 때 그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빈곤계층 청소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평등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으로써 이

들의 빈곤문제를 너무 단일한 시각에서 취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빈곤계층 또는 빈곤 가정에 대한 소득보장과 최소한의 생활수준으로의 보조와 같은 절대적인 빈곤 또는 소득 수준만을 고려한 정책지원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삶의 의욕과 자극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는 단순히 소득 부족에서 오는 물질적 측면의 곤란과 정상적인 청소년으로서의 발달에 장애가 되는 빈곤한 환경요인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사회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개념인 청소년의 특징을 나타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연령으로 구분한다. 성장발달과정에 있어 청소년기에 속하는 연령계층을 청소년(adolescents)으로 지칭한다. 실제 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연령의 범주는 법적 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청소년 연령에 대한 법적 기준은 1990년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에서 9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은 1992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법인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범위를 0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에 있어 9세에서 18세까지는 아동인 동시에 청소년으로서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는 청소년기본법상의 연령개념과 중학생 이상의 연령계층을 아동으로 보기에겐 사회통념상 쉽게 수용되기 힘들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은 중·고등학생 연령층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 통념적 관점과 같은 입장을 취하여 청소년을 중·고등학생이라고 보는 사회통념과 가까운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십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연령 범주의 설정은 빈곤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인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하고 그에 따라 빈곤의 원인의 하나로서 자신의 노력부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연령층인 20세 이상의 청소년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빈곤의 개념과 청소년의 범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빈곤계층 청소년을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한 경제적 수준에서 하위 20%에 속해 있는 가정과 청소년으로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로 한다.

## 2) 빈곤계층 청소년의 성격과 환경적 특징

빈곤계층 청소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청소년으로서의 특징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가정은 이들의 경제와 심리 그리고 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기본적 생활공간이기 때문이다.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있어서 빈곤이란 그 자체는 결핍으로서의 빈곤이지만 그들이 빈곤상황에 처한 과정이 사회구조적 또는 개인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정의 빈곤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빈곤적 특성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빈곤으로 인해 겪는 의식주의 곤란에 대한 고통 못지않게 청소년기 특성상 빈곤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으로 여길 수 있다는 면이다. 빈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생활방식'이기도 하다. 비록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 가난에서 벗어났더라도, 여전히 오랜 기간동안 빈곤한 상태에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소득을 얻게 될 상당히 높은 위험을 안고 있으며,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이나 단기간 동안만 가난을 경험한 청소년보다 장기간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한 후, 복지의존성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Duncan, Hill, & Hoffman, 1988 ; Duncan & Rogers, 1991). 이러한 빈곤세대의 생활방식에는 단순히 빈곤 외에 무관심, 소외, 반항의식 그리고 동기와 자존심의 부족과 같은 일면이 엮보이는데 이를 흔히 빈곤문화라고 부른다(김영중, 1992 :186) 빈곤문화는 세대를 이어 전승된다. 이러한 빈곤문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 박탈에 따른 빈곤계층의 방어기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빈곤문화는 사회의 주된 제도들 예를 들면 학교, 교회, 정당, 노동조합 등에 참여 혹은 동화하는 것을 막아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의 수용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둘째, 빈곤문화에서의 가족관계는 특이하여 어머니 중심적인 가족이 선호되거나 아동으로서의 기간이 짧아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경험하거나 합법적인 결혼이 없이 동거형태의 혼인생활이 흔하고 또한 쉽게 헤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빈곤문화는 또한 절망감, 의존심, 열등감 등을 배양하여 쉽게 체념하고 운명주의자가 되며 ‘출세’에 대한 동기가 매우 약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현재 중심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빈곤계층 학생 청소년에게서 실증적으로 볼 수 있다. 빈곤한 노동계층 청소년들은 학업과 행동에 따른 집단 분류 과정에서 하층으로 여과되어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Ball, 1981 :108). 이들은 학교 내에서 반학교적(反學校的) 문화를 형성한다. 이러한 반학교적 문화는 학교의 ‘실패’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 문화의

성격은 수업방해, 만전피우기, 지시 불복종, 도망치기 등의 형태로 많이 드러난다. 거기에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저항 감정이 있고 여성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시간에 학습을 하는 대신 십대의 문화에 심취하여 시간을 보내는 경향 있다. Cohen(1955)은 이러한 비행적 하위문화를 기본적으로 빈곤한 노동계급 남성의 역할과 연관된 지위 문제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다. 그는 상층 이동은 야망, 자기신뢰, 만족의 유예, 세련된 예절, 물리적 폭력에 대한 비판, 물질적 풍요에 대한 존경과 같은, 지위에 대한 중산층의 판단 준거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러나 빈곤한 노동계급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이런 준거들을 잘 습득하고 그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잘 키워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에서 낙오자가 되고 학교의 가치를 비난하고 전통적인 가치 체계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기들만의 지위 준거를 만들어 낸다. 즉, 질서에 대한 반항, 순간의 쾌락, 권위에 대한 도전 등이 그런 가치들이다(손직수 역, 1998 : 148-152). 이와 같은 문제는 학교 내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때 적지 않는 문제들을 파급시키기도 하지만,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친사회적(pro-social)행동을 올바르게 습득하지 못할 때 성인이 되어서 겪게 되는 사회적 부적응이다. 물론 빈곤계층 청소년들의 하위문화에 기존의 사회적 가치체계 더 정확히 말해서 중산계급 이상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사회적 이념과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의 논쟁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친사회적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빈곤계층 청소년의 하위문화적 특징은 그들의 도덕적 태도와 자세를 논외로 하더라도 자본제 사회에서 겪어야 할 갖가지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는 요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논의는 Hannan(1973)이 주장하는 빈곤층 사람들이 지니는

문화적 특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최일섭·최성재 공편, 1995 : 90). 첫째, 빈곤층의 사람들은 사회의 주요한 제도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받아들여진다. 둘째, 빈곤계층의 사람들은 사회의 가치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가치체계를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의 체계로부터 벗어나 있다. 셋째, 빈곤계층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책임의 포기, 한정된 자원을 서로 가지려는 갈등 등의 가족관계를 보인다. 넷째, 빈곤계층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무력감, 종속감, 강한 열등의식과 자제력의 결핍, 정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의 부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능력의 부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빈곤문화론은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빈곤문화’는 존재하지 않고 빈곤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두 집단의 유일한 차이는 빈곤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의 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문화가 존재하느냐 아니야 하는 논의의 합의점을 찾지 않더라도 빈곤계층 청소년이 청소년이라는 위치상 갖는 특징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사회적 반항심, 강한 부정적 의식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계층 청소년이 빈곤의 부정적 문화 특성은 빈곤 환경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빈곤계층 청소년은 빈곤한 생활의 직접적 원인제공자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빈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좌절감이나 반항심이 더욱 클 수 있다. Schorr(1988)은 빈곤이 청소년 발달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빈곤계층 청소년은 낮은 자기 확신감, 품행문제, 우울감, 또래갈등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고 했다. 물론 빈곤을 단순히 좌절이나 반항과 같은 사회심리적 특성으로만 설명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빈곤계층 청소년을 빈곤문화

의 부정적 요소를 잣대로 본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록 빈곤계층 청소년들에게 빈곤문화가 세습되지도 않고 또한 그들이 심리적인 좌절이나 불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기회의 차이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빈곤계층 청소년이 빈곤으로 인해 겪는 기회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사회적 불이익과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다. 실제 빈곤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기회의 제한은 특히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기 가치체계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사회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Davis는 그의 저서 「사회화와 청소년 성격(Socialization and Adolescent Personality)」에서 사회화를 한 개인이 그의 문화의 방법, 이념, 신념, 가치와 기초를 배우고 적용하며 성격의 부분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는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수락할 수 있는 행동을 배우게 된다. 이 때 수락할 수 있거나 수락할 수 없는 행동은 사회나 사회적 기관, 사회계층이나 계층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빈곤계층의 청소년들은 성표현의 사회화, 장기 목표에 대한 태도, 공격성 그리고 공식교육 분야에서 중류층 청소년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빈곤계층 청소년들은 장기목표를 위해 즉각적인 쾌락을 지연시키고 그 목적을 성취하도록 자극하는 기제를 개발시키지 못한다. 즉 빈곤계층은 빈곤으로 인해 발달과정에서 사회적 규범을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중상류층의 규범이나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빈곤계층 특유의 문화를 사회화하는 결과를 보인다(송종두 역, 1981 : 114-116. 참고).

이처럼 빈곤계층 청소년이 일반청소년과 다른 사회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더라도 그러한 특성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빈곤계층에 태어났기 때문에 갖는 특성으로서 만약에 이



들 청소년들이 어린 시기에 빈곤상황 또는 빈곤으로 인한 환경에서 탈피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만 제공된다면 빈곤문화를 답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나 현실적으로 조성되지 않는다면 그 빈곤한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심각한 좌절과 무력감이 생애의 성격적 특성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러한 빈곤계층 청소년의 특징적 성격은 이들이 갖는 환경적 특징과 맞물려 더욱 곤란한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 상황은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비행과 일탈, 심각한 심리적 장애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재생산하도록 한다.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의 언급은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이들은 미래를 위해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으며, 부자와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태도나 기술을 학습하면서 성장할 가능성도 거의 전문하다는 것이다. 동등한 유전적 자질이 제공되었을 때, 가난한 집에 자란 아이가 성공과 풍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잣집에서 자란 자신의 쌍둥이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재능만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든다고 미국인들이 믿게 만드는 것은 기만술에 불과하다”(이태원 역, 2003 : 65-66). “만약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의 부모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경찰이나 청소년 담당자는 물론이고 문제가 된 상점의 주인은 부모가 알아서 아이들을 처벌하도록 부탁할 것이다. 계층유형이 상이한 여러 종류의 동네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풍부한 경찰은 그러한 경우 중간계층인 부모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교외 아파트와 도심지역 사이에서, 그러한 차이는 훨씬 놀라울 정도이다. 1970년대에 미네아폴리스 교외에 있는 경찰서에는

대부분 대졸 이상의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아이들의 문제를 은밀하게 논의하기 위해 부모와 문제학생을 경찰서의 관련 부서로 초대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정치학자 윌슨(Wilson)이 ‘봉사유형’이라고 기술했던 교외지역 경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경찰에 적용되는 사실은 또한 학교에도 적용된다. ‘도시 중심부에 있는 학교들’은 부유한 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들과 비교해 경찰에게 학교와 주변지역을 규칙적으로 순찰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따라서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경찰들은 그러한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20년 전 사회학자인 시퀴렐(Cicourel)과 킷수스(Kitsuse)는 주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집 학생들은 못되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학생들을 불량학생으로 낙인찍는 원인이 되며,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진짜 말썽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쉽다. 즉 이러한 고정관념은 학교 당국이 교육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며, 그에 따라 더욱 많은 학생들이 불량학생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된다. 즉 ‘착한 학생들’이 대부분이 좋은 학교에서도 말썽이 일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이, 학생은 말썽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이와 같은 종류의 학생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소년 법원의 한 판사가 “최근 중간계급의 아이들도 의심의 여지없이 많은 법을 어기고 있지만, 어떤 일인지 자신은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고정관념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다.”(이태원 역, 2003 : 134-135).

이와 같이 빈곤계층 청소년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기회의 불이익 등 다양한 불리함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

은 그들이 소위 빈곤문화와 결합된 부정적인 사회문화를 만들어 내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다.

### 3. 빈곤계층 청소년의 생활실태

빈곤계층 청소년의 생활실태는 가정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빈곤계층 청소년은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이 노동을 준비하는 연령 계층으로서 자립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의 생활환경에 전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빈곤한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과 정서함양의 기회 또한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따라서 빈곤계층 청소년들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빈곤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불안정과 무력감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나 문화습득의 기회 등에 있어서 일반청소년들과 동일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구조적인 좌절감을 수용한 채 살고 있다. 빈곤계층 청소년들 나름대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지만 기본적인 환경제약으로 생활과 사회적 벽은 여전히 두터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빈곤계층 청소년의 욕구와 그들의 일반적인 생활실태를 살펴본다.

#### 1) 빈곤계층 청소년의 욕구

개인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는 의·식·주의 안정과 신체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가정의 안정 그리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한 상태를 보장받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의 욕구는 대인관계의 적절한 수행능력과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는 빈곤계층에게도 적용되지만,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빈곤계층의 욕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최저생활 욕구이다. 둘째, 주거에 관한 욕구이다. 셋째, 보건에 관한 욕구이다. 넷째, 교육에 대한 욕구이다. 이러한 빈곤계층이 갖는 욕구에 더하여 빈곤계층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처럼 그 시기적 특성에 기초한 발달과업에 비추어 필요한 욕구를 갖는다. Havighurst(1952)는 생물적, 심리적, 문화적 기반에 근거하여 발달과업을 설명하면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시한다.

첫째, 친구와 동료와의 적합한 관계수립, 둘째 남녀로서의 적절한 사회역할습득, 셋째, 부모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넷째 경제적·직업적 자립계획수립 다섯째, 자신의 신체와 성(性)에 대한 긍정적 수용, 여섯째 직업의 선정과 준비, 일곱째 결혼과 가정생활의 준비 여덟째 사회생활을 위한 지적 기능의 개발, 아홉째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태도와 능력의 개발, 열째, 행동지침으로서 윤리적 체계와 가치관 확립 등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발달과업과 관련하여서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나 직업과 같은 다양한 부분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욕구,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 성역할이나 가치체계의 형성을 위한 욕구가 분출될 수 있다. Maslow(1970)의 이론을 원용하면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가장 절실한 욕구는 생존의 욕구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은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

년이라는 것이다. 즉,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곤의 간접적인 책임은 있다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도 아니고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단순히 그의 욕구체계이론에서 생존의 욕구에 대한 충족이 절실하지만 청소년기의 가능성과 특성에 따른 안전과 소속과 사랑의 욕구 그리고 자존심의 욕구도 중요하다. 이들이 갖는 의존심과 타인에 대한 감성 지능의 무감각,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은 현상적(現狀的)으로 보이지 않지만 청소년으로서의 욕구를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이라는 환경과 청소년이라는 시기로 인해 표출되는 빈곤계층 청소년의 욕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주거, 의료, 생활에서의 최소한의 인간의 조건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경제적 욕구, 둘째,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기를 원하는 교육욕구, 셋째, 새로운 인간관계의 확장, 동일시, 가치관 확립 등과 관련된 사회관계 및 지지에 관련된 욕구,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한 자신의 미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익히고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누릴 욕구로 정리할 수 있다.

## 2) 생활실태

빈곤계층 청소년의 생활이 빈곤하지 않은 청소년과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빈곤과 이에 관련되는 다양한 결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특징적인 면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서는 기존의 빈곤계층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면접한 12명의 빈곤한 계층 청소년의 생활 영역별 실태를 살펴본다<sup>4)</sup>.

### (1) 가정과 빈곤의 결과

일반적으로 빈곤의 원인은 사회적 능력의 결여나 기회의 박탈 등에 의한 소득의 부족 또는 결핍으로 이해왔다. 그런데 면접대상 청소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은 아직도 상당부분 빈곤이 이전 세대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빈곤이 가정에 부부갈등과 폭력, 사회적 가치관과의 괴리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가난한 것보다 더 황당한 것은 지긋지긋한 부모님 싸움 이에요. 지금은 두 분이 별거하니 오히려 살 것 같아요. 거의 매일 아버지에게 맞고, 다음 날 아침이면 굶고 나오곤 했어요. 그렇게

- 4) 빈곤계층 청소년의 면접조사 실태는 12명의 청소년을 직접 면접하여 얻은 결과이다. 이들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해당되는 청소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지방검찰청 푸른상담실에서 6명과 면접한 자료이며, 7번부터 12번까지는 천안인근 시설과 천안시 사회복지관에서 추천을 받은 6명이다. 이들은 동일하게 구조화된 면접지에 의해서 조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층면접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비행유무의 뚜렷한 차이 때문에 부분적으로 빈곤계층 청소년의 생활경향을 파악하는 자료로만 의미가 있음을 밝힌다. 이들 대상 연령층은 15세 - 19세까지 10대청소년들이다

#### ○ 면접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 번호 | 성별 | 연령 | 계열      | 빈곤수준    | 특징    |
|----|----|----|---------|---------|-------|
| 1  | 남  | 14 | 학생      | 차상위빈곤계층 |       |
| 2  | 남  | 14 | 학생      | 기초생활수급  |       |
| 3  | 여  | 16 | 비학생(자퇴) | 차상위빈곤계층 | 별거    |
| 4  | 남  | 15 | 학생      | 기초생활수급  | 편모    |
| 5  | 남  | 15 | 학생      | 기초생활수급  | 가출중   |
| 6  | 여  | 14 | 학생      | 차상위빈곤계층 | 편모    |
| 7  | 남  | 17 | 비학생     | 기초생활수급  | 시설청소년 |
| 8  | 남  | 18 | 비학생     | 기초생활수급  | 시설청소년 |
| 9  | 남  | 15 | 학생      | 기초생활수급  | 편모    |
| 10 | 남  | 16 | 학생      | 기초생활수급  | 편모    |
| 11 | 남  | 17 | 학생      | 기초생활수급  | 시설청소년 |
| 12 | 여  | 17 | 학생      | 기초생활수급  | 편모    |

싸울 것 왜 결혼을 했나 몰라요. 자식은 왜 낳고... 아니면 집이라도 부자던가. 솔직히 나갈 때만 있으면 혼자 살고 싶어요.”(2)

“정말 엄청 맞았어요. 아직 살아있는 것이 신기해요. 가난한 게 제 탓인가요 공사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왜 저와 동생이 맞아야 해요? 아버지면 자식을 때려도 돼나요. 생각해 보면 불쌍하지만, 맞는 것만은 정말 싫어요.”(5)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중국에 갔어요. 어머니 말대로라면 돈벌어오겠다고 갔대요. 간간히 누나하고 연락은 하는 것 같은데. 한번도 생활비를 도와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엄마가 호프집하면서 우리를 교육시켰는데, 엄마는 밤에 안계시기 때문에 저희 집은 아지트예요. 친구들이 좋아해요. 밤마다 저희 집에서 좋은 그림(포르노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보면서 놀지요. 담배요. 제 친구 중에 담배 한 피우는 아이들 없어요. 저는 끊어볼까 해요. 저희 가정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들 같아요. 신문에 나는 모범가정을 빼고는요.”(9)

## (2) 비행경험

면접대상자 중 6명은 범법행위로 인해 검찰에 송치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비행경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이들 중 3명은 2차례 이상의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원동기면허증소지를 하지 않았거나, 자판기 동전절도와 동료간의 폭행 등이 대부분이었다. 다른 부류의 면접대상자 중 2명은 절도경험이 있었지만 발각되지 않은 사례였고, 2명을 제외하고는 술과 담배를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12명의 면접대상자 가운데 5명이 가출경험을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주위 환경과

친구들 사이의 분위기가 비행에 접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남성청소년의 경우, 가난한 또래 아이들이 모여서 놀 때 핵심적인 가치는 누구 더 남성다움을 보일 수 있는가 이며, 이들이 뜻하는 남성다움이 표현은 대담하고 적극적인가 이다. 이는 곧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토바이타고 질주하기, 빠른 시간 내에 돈 뺏고 나오기, 마음에 안 드는 녀석 먼저 치기 등등. 대부분의 면접대상 청소년들은 비행행동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것들이 큰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반사회적 행동에 접근하지 않고 가난하면서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방법이 그리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 (3) 가치관

노혁(1997)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계층 청소년들은 사회 도덕적으로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면서도 현실적으로 빈곤이라는 장애 때문에 부딪치는 가치의 혼란이 크다. 이번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서도 비슷한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상당히 이중적이었다.

“돈이 최고예요. 여기(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보면 지독해요. 아마 원장님도 혀를 내두를 거예요. 몇 년 전부터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각자 관리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천차만별 이에요. 어떤 녀석은 몇 백 만원을 저금하기도 한 반면에 또 다른 녀석은 원장님이 갚아준 빚만 해도 꽤 돼요. 그런데 열 중 아홉은 돈을 모으던 잘 쓰던 돈만 생기는 일이라면 사족을 못 써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아파도 돈이고, 여자도 돈이잖아요.



우리는 눈이 없어 TV를 안보겠어요. 근데 가슴이 아파요. 어떤 때는 돈 얼마 때문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형제나 마찬가지로인데, 눈에 살기까지 도는 것을 느낄 때는요. 돈 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돈이 제일 소중한데요.”(11)

“학교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한번 찍히면 끝 이예요. 저희 같이 가난한 녀석들은 그 학교를 떠나지 않는 한, 그래서 자꾸 끼리끼리 모이죠.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이면 욕이라도 하고 마음이 편해요. 우리 같은 친구들 중에 내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힘드니까. 그런 생각은 하죠. 운전면허나 따서 트럭이나 몰아야지, 아니면 요리나 배울까 정도죠. 근데 꾸준히 하는 친구들은 드물어요. 제가 보기도 하루하루 뒷골목에서 살아가는 저희 같은 친구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욕하는 성질만 생기죠. 가치요. 소중한 것이요. 있겠죠.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 하루 품 나게 살고 싶어요. 잘 사는 사람들 세계는 알고 싶지 않아요.” (4)

#### (4) 욕구와 생활에서의 불만

면접 조사한 빈곤계층 청소년들이 갖는 대체적인 욕구는 경제적 곤란이었다. 그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좀더 나은 교육기회를 가질 수 없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도 힘들다는 등 다양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빈곤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가난한 청소년을 보는 사회적 편견이 심하다고 보고 있으며, 사회에 대해서 비교적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저는 사회에 불만 있어요. 최근에 텔레비전을 보니 학교 안 다니는 애들에게도 청소년증인지 뭔지 만들어서, 할인해 준다고 하데요. 청소년증 말이에요. 그거 더러운 거예요. 어떤 녀석이 나

놀아요 하고 다녀요. 아주 웃겨요. 그것보다 차라리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라도 하나 더 지어주세요. 알아서 놀 테니까요. 정말 없어보세요. 할인해 주는 거 그렇게 반가운거 아니 예요.”(4)

“놀 때가 없죠. 요새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아세요. 전(돈) 좀 있는 녀석들은 영화도 보고, 군것질도 하지만, 우리는 좀 생기면 PC방에서 다 해결해요. 사실 자판기 동전을 훔치는 것도 PC방에 가기 위한 것이지만, 돈 때문이라면 아르바이트 하면 되요. 사실 밤에 할 수 있는 스틸 있는 놀이도 되잖아요. 선생님 앞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야 하지만, 싫어요.”(1)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것은 너무 당연해서 불만거리도 아니 예요. 근데 엄청 화나는 게 있어요. 요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유기농제품을 먹어야 하고 그러면 환경오염도 덜 된다고 하잖아요. 비싼 유기농제품을 어떻게 사먹어요. 안보고 살아야지 신경질 나요. 가난해서 병이 걸려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킁킁거리며 음식 갖고 장난치는 듯한 무슨 퓨전요리 하는 것들 보면 뒤집어엎고 싶어요. 돈이 없어도 마음은 다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3)

“강북아이들과 강남아이들 사이에 노는 차이가 많다고 이야기들 해요. 그런데 같은 강남이라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말이 강남이지 강북보다 못해요. 옆에 보면 근사한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고 숨겨진 곳에 별별 무도장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꿈도 못 꾸어요. 차라리 그런 꼴 안보는 강북아이들이 속편해요. 어떤지 아세요. 가끔 밤새워 신나게 놀아도 그 치들은 과외선생이 붙어있어 학교에 오면 배우는 게 재미없어 자요. 그렇지요. 잠은 학교에서 보충하면 되지요. 저도 그렇지만...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엄청 불편해요. 아마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

을 거예요. 여자친구를 사귀려도 성능 좋은 오토바이 타는 녀석하고 비교가 되나요. 저라도 구질구질하게 노는 녀석하고 안 사귈 거예요.”(10)

### (5) 학교 및 사회생활

면접한 빈곤계층 청소년들의 학교 및 사회생활은 여타의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깊이 대화를 하면 그들이 빈곤에 대한 열등의식과 그로 인한 피해의식이 내면 깊숙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부분적이지만 빈곤계층 청소년을 바라보고 대하는 사회적 선입관이 그러한 잠재적 피해의식을 더욱 키우고 있는 듯 했다.

“중 1때 담임은 사고만 터지면 저에게 다그쳐요. 그 때 학교가 싫어서 가출했고, 담배도 배웠어요. 지금도 학교만 떠올리면 열통이 나요.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옆에 서있는데서 저희 어머니가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런 아들 가져서 살아가기가 힘들겠다고’ 잊지 못할 거예요. 마음 같아선 학교들 모두 폭파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4)

“시설에 있는 청소년은 무지 모범생이 아니면 안돼요. 왜냐구요. 보는 눈이 엄청 많거든요. 아직도 어른들 아니 또래 친구들조차 어찌다 메이커 옷을 입고 다니면 수군거려요. 제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요.”(7)

“일 끝나면 그냥 시내에 나가요. 번두리 시내가 재미있어요. 요즈음은 음료수 하나 사들고 이것저것 두리번거려요. 옷차림에서 표가 나는지 옷가게를 구경하려고 들어가도 점원이 나만 계속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경하러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냥 집에 와서 TV보다 자요. 뭐 다른 게 할 것이 없

어요. 차비 만해도 어딴데요.”(6)

#### (6) 자립지원과 관련한 사회에 대한 요구

자립지원과 관련한 요구는 다양했지만 우선적인 것은 경제적인 지원이었다. 면접한 몇몇 청소년은 혼자 살아야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가정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사회에서 대신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면담과정에서 내비쳤다. 이와 함께 면접한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직업교육과 함께 직업을 가졌을 때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사실 좀 암담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 친척이 한분 계시지만, 연락하기는 좀 그렇구요. 그 동안 정보통신교육을 받아 직장도 알아보고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나가면 냉정한 사회라고 하던데. 요즈음 같아서는 친한 형이라도 있었으면 해요. 사회적 지원이요. 이런 것도 되나요. 할 수 있으시다면, 혼자살 수 있도록 방을 융자해주고, 소위 돈 없고 연고가 없는 사람도 배경이라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업신여기지 않았으면 해요.”(8)

“자립이요. 열심히 살아야지요. 무슨 지원을 바래요. 저 혼자 해야지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부모님들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인문계 다니고 싶었거든요. 예능계는 엄두가 안 나겠지만, 인문계가면 제가 좋아하는 그림... 부모님에게 그림을 배우겠다고 이야기 꺼냈다가 한마디로 무시당했어요. 그냥 살아야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라에서 무엇

을 하든 저랑 무슨 상관 이예요.”(12)

“경제적 도움이요. 필요해요. 경제적 도움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다 되요. 그러니 돈만 많이 도와주세요.”(8)

“일거리는 많은 것 같아요. 어른 말대로 아프지만 안으면 무엇을 해도 살 수 있을 것예요. 적어도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을 것예요. 돈을 열심히 모을래요. 정말 부지런히 일한 사람들이 상치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자들이 미운 건 아닌데 어떤 때는 화가 나요. 정말 저도 당했지만, 친구들이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돈을 못 받고 나올 때 그 집에 쫓아가서 불 지르고 싶어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안 그러겠죠.”(10)

“지난번에 가난한 청소년 모여라 해서. 어디서 주최 했던가 수련활동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청소년은 함께 모여서 놀아야 해요. 그렇게 며칠 잘 먹고 선물하나 주면 행복해 할까요. 우리도 사람이고 알 것 다 아는 청소년 이예요 물론 그런 것 다들 안고 따라가지만. 다른 방법으로 저희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호텔 나이트 티켓 같은 것을 주면 안 되나요. 우리도 그런데서 놀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기도 해요. 한 가지 부탁을 더 하면요. 왜 가장한데만 생활비지원을 하지요. 그것 같고 술 먹으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청소년에게는 생활비 지원해주면 안되나요. 아니면 아버지가 돈 쓰는 것을 법으로 막든 지요.”(9)

면접 조사한 빈곤계층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빈곤으로 인해 겪는 고통 못지않게 정서와 사회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더

힘들어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둘째, 그들은 대체로 기능적으로 결손 가정 내에 생활하고 있었으며 가족성원으로부터 심리, 정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 친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할 자원이 부족하였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 생활을 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셋째, 빈곤계층 청소년 중 적지 않은 숫자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빈곤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데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

#### 4. 빈곤계층 청소년과 자립능력개발

##### 1) 빈곤계층 자립에 대응하는 노동중심복지의 딜레마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빈곤일 것이다. 탈산업사회를 외치고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선진화되고 풍요로운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빈곤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빈곤이 단순히 인간사회에서 충족되어야 할 욕망에 비해서 재화의 공급이 불충분하다는 특징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반면에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도전이며, 이와 동시에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에 대한 충족을 넘어서 보다 안락한 생활, 여가, 문화적 향유 등과 같은 2차적 욕구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인간 욕망의 무한성으로 볼 때 그러한 발전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이에 대한 협상으로 등장한 것이 ‘복지에서 노동(welfare to

work)’라는 노동중심의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계량적 ‘복지 즉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복지에는 항상 한계와 모순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노동중심의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많은 나라들은 이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일하지 않는 복지수급권자에게 일을 통한 노동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은 일견 매력적인 정책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Solow(1988) 그의 ‘노동과 복지(work and welfare)’에서 미국의 취업우선 전략에 의거한 복지개혁이 궁극적으로 빈민들을 “복지에서 실업으로” 내몰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노동시장의 공급부문에서 찾고 있는 현행 복지개혁을 강하게 비판하고, 충분한 거시경제정책의 지원이 없는 단순한 탈 복지정책은 복지개혁의 목적인 빈민계층의 자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는 복지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의 증대가 노동시장 전반에 임금하락을 가져올 것이며 이것은 다시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켜 고용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공허한 희망”(a forlorn hope)이라고 일축하면서, 임금인상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은 고임금·고숙련 부문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그는 탈 복지정책 자체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복지수급자들은 여러 가지 구조적 이유로 저임금 일자리와 복지수급 상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이들을 복지명부에서 무조건 떼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인간적이면서도 노동윤리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한다(김종일, 2001 : 210-211. 재인용). 한편, 복지국가를 노동중심적인 것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의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다. 유연화문제는 특히 유럽의 고실업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으로 여겨져 왔다. 유럽의 고실업이 과도한 고용보호장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 유연적인 미국 노동시장의 고용창출 성과를 염두에 두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되는 유연성이란 수량적/외부적 유연성이다. 이것은 상품수요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의 자유로운 조절능력을 의미하는데, 기업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고용과 해고의 자유로 요약된다. 서방 복지국가들은 대체로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어서 고용창출이 더디고 실업률이 높다는 지적이 거의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다.<sup>5)</sup> 하지만, 최근 유럽에서 나온 연구결과는 이 ‘상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European Low-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2001). 이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미국의 고용격차(employment gap)는 노동시장의 양극단인 첨단 분야의 고임금 일자리와 서비스 분야의 저임금 일자리에만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의 부족이 이 격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에 고용의 핵심인 중간 수준의 일자리는 미국보다 오히려 풍부하다는 것이다. 결국, 유럽의 낮은 고용율은 미국에 비해 대단히 평등한 고용분포의 불가피한 산물이지 경직된 노동시장의 결과가 아니라는 주장이다(김종일, 2001 :205).

결국 복지의 경제화라는 미명아래 노동과 자본의 윤리로서 교묘하게 포장하여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파괴하기 만들 수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은 경제적 논리이전에 인간의 기

5) 사실 노동시장의 경직성 즉, 고용과 해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문제는 서구 유럽의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과 상당부분 관계가 있으며, 이는 또한 1980년도에 대처와 레이건 정부의 기류에 편승한 신보수주의 물결로 복지규모를 축소하고, 이어 복지에서 노동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동인이 있었고, 이에 대해 미국은 방만한 복지운용에 강력한 경제성장과 고용과 해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상당히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유럽은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사회주의 성향이 저변에 깔려 복지와 노동조합에 발목을 잡혀 매우 더딘 발전을 진척해 나가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본다.



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이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적 지향점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빈곤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준자체가 모호하지만 개인과 가정 또는 사회가 극복할 수 있는 일정량의 빈곤 즉 부족감은 긴장감을 유발하여 삶의 새로운 도전의식과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빈곤타파를 위한 일거의 방편으로 복지를 노동으로 대체한다면, 이는 빈곤계층에서 공연한 희망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서구복지국가에서 많이 보아왔듯이 절대빈곤을 막 벗어난 빈곤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맺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전에 적어도 생존의 조건에 대한 사회 복지적 공급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전달되는 것만이 자립능력을 향상하는데 있어 기초적 여건이 된다. 특히 빈곤 청소년 계층에게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요구에 대한 지원은 성인에게 논란이 되는 일하지 않는 자의 복지수혜 또는 시혜의 낙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기본적 욕구의 지원은 성인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 복지수혜 비해 훨씬 정당하고 공평한 기회균등의 권리(welfare rights)로서 인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의 보장책을 사회와 국가가 반드시 담보해 줄 수 있는 기초아래서 시작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립능력은 현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듯이, 현재의 생활경험이 미래의 능력을 좌우할 수 있다.

## 2) 빈곤계층 청소년과 자립

### (1) 자립의 의미

자립(self-help)은 스스로 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삶을 자신이 주체적으로 통제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상태를 의미한다. 즉 경제·사회·정치·정서·문화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유롭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생활방식을 말한다. 이처럼 자립에는 경제적인 의미와 정신적인 개념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그렇지만 인간은 경제 또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사회 환경의 압력이나 자신과 사회와의 불일치로 인해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지 못할 때가 많다. 특히 자립에 필요한 요건인 생활에 필수적인 경제적 안정이 되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여건이나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기 못하고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립의 두 가지 큰 요소로 볼 수 있는 것 중 경제적 자립(self-support)은 빈곤계층에게 경제적 열등성을 극복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정신적 자립(self-reliance)은 심리적인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신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다.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있어서 자립은 경제와 정신적인 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되, 경제적인 면은 청소년이 혼자생활하거나 심각한 결손상태에 처해 있는 가정을 제외하고는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하며, 청소년 개인에게 자립을 강조할 때는 정신적

인 자립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발달 과정상 전적으로 경제생활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며, 오히려 장차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습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제 사회에서 빈곤계층 청소년과 자립을 논할 때 있어서 특별히 노동(일)과 소외(alienation)의 문제는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흔히 소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르크스를 떠올린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상품을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저렴한 상품으로 가치가 매겨지며, 이는 노동 즉 인간의 소외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동은 단순히 상품가치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세계와 관련을 갖고 자신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한다는 것이다. 자본제 사회에서 결정적 부문이 된 경제의 세 가지요소는 자본·노동·토지이다. 인류역사가 시작되면서 인간경제를 이끌어 온 것은 토지였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달 이와 관련된 시민사회의 확립은 자본과 노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르네상스 이후 인간에 대한 실존적 가치가 제고되면서 인간의 노동의 신성함은 더욱 강조되었지만, 인간의 이기심을 극대화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로 자본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대부분 국가의 요청에 따라 노동도 자본에게 경제 요소의 제일선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 복지국가는 이러한 사회경제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논쟁을 실천적 방안으로 극복하려는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복지는 자본주의의 시녀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복지는 철저히 자본주의에서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자본은 물질문명을 가속화시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공헌을 했다고 주장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복지

-여기서 복지는 협의의 사회복지적 의미가 아닌 인간의 복리(well-being)를 뜻한다-를 지향하는 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복지는 자본에 속해있는 노동의 자본화과정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을 통해서 자본을 성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복지의 역할은 자본제 사회 내에서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에서 노동의 의미를 찾는 데서 나아가 노동자체의 분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결국 노동을 소득확보의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노동의 소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은 삶의 원천으로서 자존심과 자기생활을 충족하게 하는 자립의 수단인 동시에 목표로서 해석되어야 하며, 여기서 자립의 기본적인 의미를 탐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 만족한 삶을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삶의 자족이 철학적 지향점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와 노동 그리고 자립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쟁점 중의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지난 몇 년간 논란이 되어 온 생산적 복지와의 관계이다. 생산적 복지란 다분히 보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복지의 생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1970년대 석유파동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이전까지 자본주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완전고용과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수혜는 장애가 없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이상적인 복지사회가 구현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관점에서 1980년대 복지국가의 재편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복지 서비스 재편성의 이론적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사람은 노력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보다 정부 지원이든 기타지원이든 그러한 지원에 의해 사는 것이 쉽고 편하다고 느낄 때에는 그러한 외부지원에 의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고 더 벌어서 보다 나은 생활수

준의 향상과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는 근검절약의 정신과 생활태도를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며 근검절약, 자조, 자립, 독립심 등 미덕과 사회윤리를 강조하는 영국과 미국 사회 나아가 서구자본주의 사회의 뿌리 깊은 전통과 문화적 유산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Johnson, 1987 : 443-445). 요컨대 복지 서비스는 외적 지원의 의존심과 근로의욕과 저축동기를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을 복지수혜자들에게 미치며, 이것은 나아가 상당수의 노동인력을 비생산적으로 방치시키는 것이며 그 결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 재편성의 논리이다. 그리하여 서구선진사회에서는 '복지수혜안전망(safety net of welfare benefits)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축소하고 있다(어윤배, 1996 : 42-4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에서 복지에 대해 보는 시각을 재조정하고, 복지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껴 제시한 개념 중의 하나가 생산적 복지이다. 그런데 생산적 복지는 노동(일)과 사회복지와의 강한 연계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자칫 자본제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연속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비록 사회복지가 자본제 사회의 모순성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 해도, 사회복지 자체가 갖는 윤리성과 역사성 그리고 미래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사회복지가 직접적으로 생산성과 연계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허약한 사람에게 좋은 음식과 환경을 제공해서 체력을 보완하기 보다는 약물 등 단기적인 처방을 통해 잠시 힘을 증진시키는 결과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가 중요한 사회유지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할 필요가 있다. 복지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빈곤계층 등 일차적인 복지수혜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생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가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립과 자족의 능력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여 주체적인 노동과 사회 환경 개선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성장과 발달과제를 안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계층에게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환경에서 노동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에게 자립(self-reliance)을 통한 자족(self-satisfaction)의 정신과 방향이 중요한 이론 및 실천적 원칙이 되어야 한다.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복지지원을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방향은 자립을 통한 적절한 자기 통제와 만족이다. 만일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자립이라면 그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추한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한 욕망을 더 많이 얻으려는 경쟁에 이용하지 않고 타인과 사회의 행복을 위한 에너지로 분출함으로써 자기만족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의 현재에 있어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미래를 조망하는데 있어서는 창의적이고 책임성이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물질적·비물질적으로 자신의 분수를 이해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삶의 주체성을 즐기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바탕위에서 인간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립은 욕구(need)와 바람(want)의 적절한 조정과 연계이다. 경제적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물론 경제적 조건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갖게 하는 필요 요건이다. 이를 기반으로 인간의 정서와 정신적인 충족을 원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가족 성원 각자가 만족감을 느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노혁, 2003 :357-360). 이처럼 자본과 자본 밖에서 강요당해온 정신적 행복

과 물질적 행복의 이분적 구분을 넘어서 통합적인 행복모형으로서 둘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자족을 바탕으로 한 자립의 능력과 동기, 그리고 기회를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복지지원의 이념적 배경을 가져야 한다.

## (2) 자립의 방향

Powell(1963)에 의하면, 자립은 의존성의 개념과 상반되는 의미로서 각 개인의 성취정도와 일맥상통한다고 한다. 그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성취해야 할 몇 가지의 자립적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년배와 새롭게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둘째, 자신의 신체를 유용하게 활용해야 하고 셋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성취해야하고 넷째,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야 하며, 다섯째,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는 행동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박용순, 2001 : 61-62. 재인용). 이처럼 청소년에게 자립은 경제활동을 통해 물질적 풍요로움 못지않게 환경과 조화를 이룩해야 하며 그 속에서 인간관계와 인간 상호간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자립’은 제 밥벌이의 수준을 넘어서 창의적이고 타인 지향적인 ‘연대’의 정신적 가치와 윤리를 포함하는 사회적 개념이 되어야 한다. 복지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정상적인 경제적·정신적·생활을 수행하도록 돕는 전문적 실천과 제도적인 노력이라고 볼 때,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의 일차적인 목표는 자기 스스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 인간다운 삶을 개척하고 영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빈곤계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개입에 있어서의 ‘자립’은 복지가 갖고 있는 사회적 관심과 기능을 최대한 부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청소년은 아동

과 노인의 연령층과는 다르게 그 자체로서 많은 잠재적 능력과 기회를 갖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빈곤계층 청소년도 청소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립 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일과 삶과 사회적 관계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이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현재의 생활에서 충분한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장차 성인이 되어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권리를 보다 즐겁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해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자립’의 핵심은 개인의 자립으로서 ‘일’과 사회적 협력을 갖는 ‘의식’이다. 일을 통해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며 상호협동과 참여의 기초를 만든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일은 결국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자립을 경제적인 관점과 개념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자립의 원초적 수단으로서 일의 본연의 의미를 강조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은 개인적인 수준의 요소가 아니다. 여기에는 사회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사회의식은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덕과 윤리이다. 서로 살 수 있는 환경과 질서를 구성하는 기초이다. 인간의 대등한 의존성은 신분과 연령에 관계없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존성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상호간의 평등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다원화 사회에서 의식은 획일화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을 둘러싼 상호필요에 대한 이해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는 물론 인간과 환경 그리고 환경과 환경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형성에도 중요하다. 결국 자립은 함께 사는 삶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 일을 처리해 나가며 이로써 만족을 느껴나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신인 동시에 실천적 활동이다(노혁, 2002 : 73-75).



### 3) 빈곤계층 청소년자립능력개발의 의미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은 다음과 관점을 담아내려는 노력이다. 우리의 사회변화는 필연적이다. 사회는 매우 역동적이고 다양하게 변화한다. 사회사업이 사회변화의 흐름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모두 담아낼 수는 없다. 사회사업은 자본주의사회 변화 속에서 존립과 이해가 가능하다. 사회사업이란 자본주의사회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한다. 아울러 그 구조적 필연으로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공사(公私)의 사회적 대책체계의 한 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중앙사회복지연구회역, 1991 : 21). 이러한 사회사업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은 사회적 보호와 통제에 관여하고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역설적인 현상은 사회사업이 지속적으로 사회 환경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사업에 있어 사회적 욕구(social need)는 사회적 보호와 통제의 기능을 조정하는 변수가 된다. 그런데 사회적 욕구 자체가 다양하고 동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는 사회마다 다른 것이고 같은 사회 내에서도 여건과 상황의 변동에 따라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어운배, 1996). 이렇듯 자본주의사회 제도 내에서 존재하는 사회복지의 양면성을 가진다.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에 있어 촉매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체제에서 낙오된 빈곤계층, 장애인, 사회적 역기능을 유발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애와 인간의 존엄성을 물질과 비물질적 서비스를 통해 제도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형성한다. 사회복지의 시장제도의 배분기능에 '인간성'을 부여하고, 전통적인 가정의 자녀양육, 구성원간의 경제적·정서적 지지기능에 '사회성'을 부여하려는 집합적 노력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시장제도의 허구적

이고 반인간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가족기능 변화의 필연성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의 시장제도와 가족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량하려 한다(이혜경, 1994 : 314). 이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열악성을 사회복지의 항상 새로운 시각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한다. 빈부 격차가 심할 때 사회복지의 소외계층 등에게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평등과 정의의 기치로 사회 안정유지를 위해서 노력했고, 노력했고, 사회구조적 결함과 작동의 미숙으로 고통을 겪는 사회 중간계층의 낙오를 막고자 사회안전망을 전개하는 동시에 부의 일방적 축소를 막기 위해 노동과 연계된 복지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렇듯 사회복지의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일차적 노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의 공급원인 사회경제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균형을 맞추려는 안쓰러움을 계속 진행시켜왔다. 이렇게 복지대상자와 복지공여자의 중간인 좁은 평균대에 서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는 그들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인 사회개발을 새삼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인 부존자원이 취약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후발 한국사회가 포기한 것은 경제성장제일주의지 경제성장이나 경제적 효율자체는 아니다. 사회개발이란 경제성장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민간수준의 인도주의적 동기를 조직화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가족이기주의가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인도주의의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이와 같은 잠재된 민간자원의 적절한 활용정책, 장기적인 인력정책, 문화정책, 조세정책을 포함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사회개발의 일부로서 계획되어야 하며, 동시에 경제정책의 동반자로서 경제사회발전의 견인차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이 복지수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노력이 곧 사회경제발전으로 연결되는 방향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이 이념적 또는 실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사회복지가 자본주의 체제의 틀 속에서 해석되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한 불가피한 요책이라고 볼 수 있다(이혜경, 1994 : 325-326).

그렇지만 그 동안 사회복지가 욕구(needs)에 대한 자원(resources)에 대응의 차원에서 사회 자원이 갖는 한계를 복지수혜자들에게 인식시키는 한편, 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복지수혜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경제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다. 이는 실천적 관점에서 자립능력을 개발하여 개인에게 사회적응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이것이 곧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에 따른 전반적인 정당성과 타당성을 사회개발전략에서 찾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복지수혜자 즉 자립대상자의 능력개발에서 능력이 자원개발의 능력으로 등가(等價)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계층 청소년개발에 있어서 자립능력이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과 사회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의 개발만으로 한정된다면, 사회복지의 계속해서 사회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하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청소년개발을 위한 사회의 복지자원의 투자가 사회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앞선 순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개발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탁상공론이 되거나 이상적인 사회를 위한 이념적 표어 아니면 사회의 구색 맞추기 위한 정책적 배려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비록 이것이 청소년의 자립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분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빈곤계층 청소년에 대한 자립

능력 지원의 타당성을 새롭게 유인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에 따른 하나의 대안은 능력에 대응하는 자원 못지않게 그동안 소홀히해왔던 욕구의 적정성을 탐색해서 그에 적합한 능력 개발의 측면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가 자선사업시대부터 이어져 온 사회기득계층의 윤리와 생활방식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사회통제와 억압의 기능을 되찾자는 것이 아니다. 그 시대는 일방적인 윤리의 강조였고, 표면적인 윤리와 태도의 내면화와 행동의 복지수준과 직결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욕구의 탐색은 자립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의 부여를 전제로 한 다양한 자기만족의 수준을 찾자는 것이다. 그 동안 자립과 능력의 부여(empowerment)에 관해서는 타인이나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량개발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능력이란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사회에 대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량도 포함된다. 이런 면에서 욕구의 조정은 지속적인 사회자원개발을 유보하거나 소홀히 하는 전략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욕구의 조정은 물질의 적절한 통제를 통해서 다양한 자기만족의 수준과 대비시키는 일이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에 가깝게 단계적으로 발생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원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 공급되더라도 인간의 유한한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것이며, 불평등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거듭 강조하듯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품위 있는 생활할 수 있도록 욕구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며 계속되어야 할 복지 과제이다. 이와 함께 불평등의 완화 또는 제거를 위한 부와 자원의 재분배도 복지가 지향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다양한 삶의 이유와 조건을 수용하는 기초위에서 사회구성원 각자가

갖고 있는 욕구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는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추상적으로 인식해 왔던 물질과 비물질적 욕구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있어 모두 물질적 자원과 연계시켰다는 반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삶의 양보다 삶의 질에서 생활의 다양성을 통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환경운동과 사회공동의 연대의식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질 높은 삶의 보람을 느끼는 활동영역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많은 사회부담을 안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하는 청소년에게 더욱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빈곤계층 청소년들에게 자립의 동기와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이 물질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비물질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통제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이 갖는 함의는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시혜를 받는 계층에서의 탈피가 아닌 자기의 삶을 정신, 물질적으로 주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줌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공 백

### Ⅲ.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실태 조사 분석

1. 조사 내용 및 방법
2. 조사결과분석

공 백



### III.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실태 조사 분석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지원방향과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의 청소년자립시설과 센터(이하 자립지원시설)의 자립지원 실태와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였다.

#### 1.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시한 자립지원시설 실태 조사는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지원방향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자립지원시설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한 문항으로는 시설의 법인유형, 청소년과 종사자의 현황, 그리고 아동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자립지원시설과 센터를 운영하는 지 여부이다.

둘째, 자립지원시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립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과 방법 등이 조사되었다. 또한 시설운영의 문제점과 프로그램 구성과 계획을 어려움 등을 알아보고,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의견을 영역별로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자립에 필요한 요소와 자립지원시설프로그램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립지원시설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이수청소년의 취업률과

직종 및 재직을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자립지원시설의 운영자에게 자립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파악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지원요소 및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방안,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에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화된 조사면접지는 2003년 8월 5일에서 8월 25일까지 20일 동안 전국 20개의 자립지원시설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회수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였다. 기간 중 회수된 면접지의 수는 13부였으나, 3부는 응답내용이 부실하여 제외하고 10부만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 2. 조사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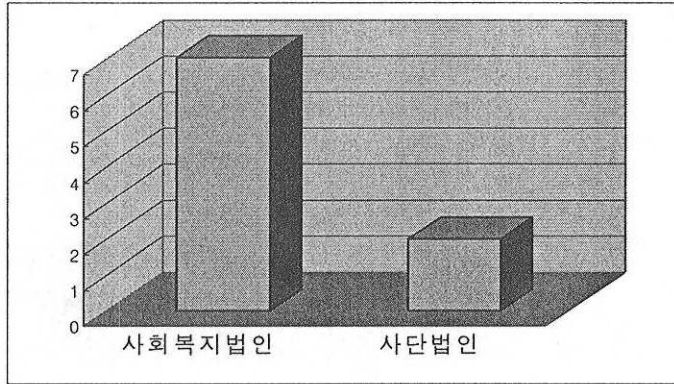
### 1) 자립지원시설의 일반적 사항

〈표 Ⅲ-1〉 청소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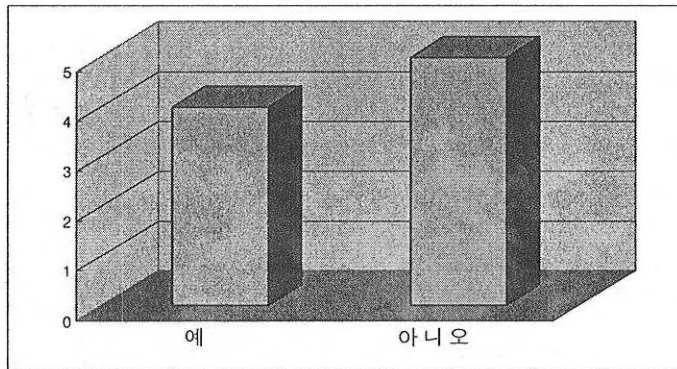
| 구 분    | 정 원     | 현 원     |
|--------|---------|---------|
| 인원(평균) | 400(31) | 214(16) |

〈표 Ⅲ-2〉 종사자현황

| 종사자 | 사회복지사 | 직업교사 | 직업상담사 | 생활지도원 | 보육사 | 기타 | 합계<br>(평균) |
|-----|-------|------|-------|-------|-----|----|------------|
| 인 원 | 16    | -    | -     | 10    | 3   | 5  | 44(3)      |



[그림 III - 1] 시설의 법인 유형



[그림 III - 2] 아동복지시설 포함 여부

조사대상 자립지원시설 중 사회복지법인이 8개, 사단법인이 2개였다. 이 중 아동복지시설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립지원시설은 5개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립지원시설의 입소청소년 정원은 평균 33명이었고 현원은 20명으로 평균적으로 정원의 60%정도만 입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자립지원시설의 직원은 평균 2명 정도였고 시설종사자 중 60%정도가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였다.

## 2) 자립지원시설의 현황

### (1)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자립프로그램

생활지원금 지원, 자영업 등을 위한 용자알선, 직업알선, 직업훈련(교육), 기타사항 등 모두 5개의 영역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시설은 한 시설도 없었으며, 자영업 등을 위한 용자알선의 경우에는 장애가정에 속한 청소년인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의 용자시스템과 연계하여 알선한 후 사후 관리한다는 자립지원시설이 1개 시설이었다. 직업알선은 6개의 자립지원시설에서 시행 중이었고 주로 노동부와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있었다.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시설 중 5개의 시설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직장체험연수생제도를 활용하거나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의뢰하고 있었다. 기타 자립지원시설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주로 숙소를 제공하고(7개 시설),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6개 시설), 1개시설의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상담 활동도 벌이고 있었다.

### (2) 자립프로그램의 선정기준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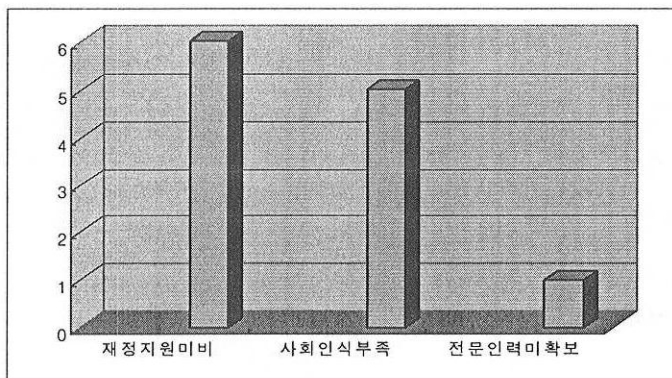
자립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대부분(7개 시설)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책임자와 실무자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었으며, 1개 시설만이 자립프로그램 선정 시 시설이용 청소년의 의견을 포함시킨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2개 시설은 별다른 선정기준과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3) 향후(3년 이내) 실시 예정인 자립프로그램

조사한 자립지원시설의 절반인 5개시설이 실시 예정 프로그램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실시예정 자립프로그램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주로 IT와 요리교육 등 최근에 청소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직업훈련분야에 대한 교육을 예정하고 있었고, 청약저축의 필요성과 신용카드사용교육 등 대상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활교육도 계획하고 있는 시설도 있었다.

### (4) 자립지원시설 운영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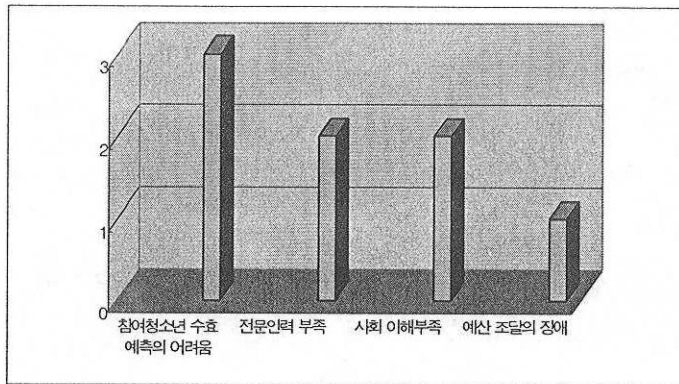
자립지원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중복 응답하도록 한 결과, 응답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재정지원의 열악성(6개)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5개)이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의 미확보에 대한 의견도 1개가 있었다.



[그림 III- 3] 시설운영의 문제점

### (5) 자립프로그램 계획과 구성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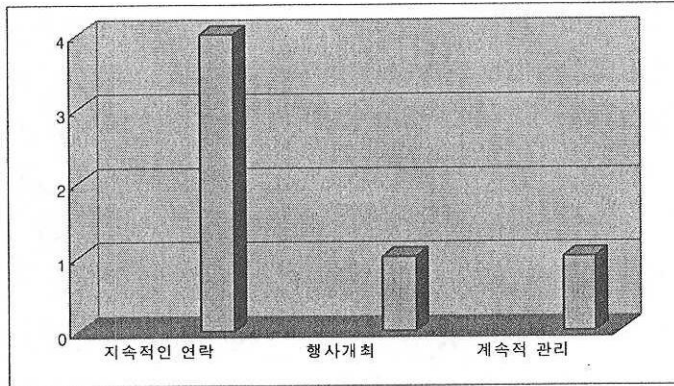
자립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구성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중복 응답하도록 질문한 결과, 참여청소년 수효예측의 어려움(3개), 전문인력의 부족과 사회의 이해부족(2개), 예산 조달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하나였다.



[그림 III-4] 프로그램 계획과 구성의 장애

### (6) 자립지원시설 퇴소청소년의 사후관리방법

자립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시설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2개 시설에서는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거나 사후관리팀장이 있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퇴소 후 청소년들과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림 III - 5] 퇴소 청소년 사후 관리 방법

## (7) 자립지원시설 청소년이 자립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

자립지원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자립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경제·사회·직업·문화·심리·기타사항 등 6개의 영역에 걸쳐 내용을 조사하였다. 우선 경제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주로 청소년의 개별생계비 지원과 자립시설 퇴소 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숙소)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 외에도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학 등을 진학한 후 등록금 지원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사회적 지원영역에서는 대부분 빈곤계층인 자립지원시설 입소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예를 들어 취업 후 고용주가 재정업무를 맡기기 꺼려한다는 점 등)에 대한 시정을 원하고 있었으며, 빈곤계층 아동에게만 이루어지는 후원과 결연이 빈곤계층 청소년에게도 다른 형태의 사회적 결연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직업적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훈련과 취업이 연계된 체계화된 교육과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대

부분 응답하였으며, 힘든 3D업종을 꺼려하는 청소년들의 직업적 태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문화적 지원에 관해서는 3개의 시설만이 응답하였는데 주로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청소년이지만 정기적인 무료검진 혜택을 원하는 응답도 있었다. 심리적 지원영역을 보면 상담과 정서함양을 위한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기타지원으로는 의료지원과 함께 심리와 생활상담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자립을 위한 별도의 전문시설을 통한 서비스제공의 의견도 있었다.

#### (8) 자립시설 퇴소 후 청소년사후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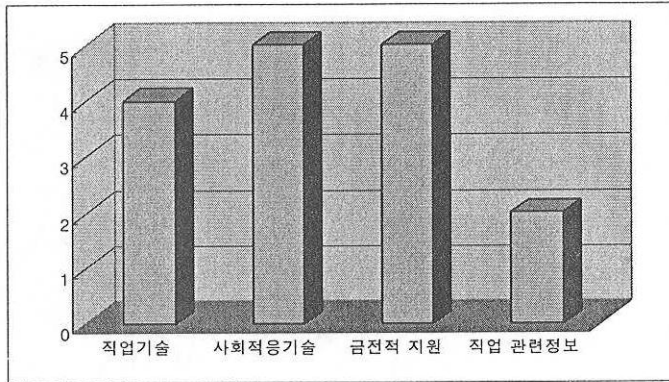
조사한 자립지원시설 모두 시설 퇴소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았다. 3개 시설에서만 시설의 행사와 부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었다.

### 3) 자립지원시설 청소년의 자립관련 요소

#### (1) 자립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요소

자립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요소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 사회적응기술과 금전적 지원의 필요성(5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에는 직업기술(4개), 직업관련정보(2개)의 순서였다. 직업알선과 기타응답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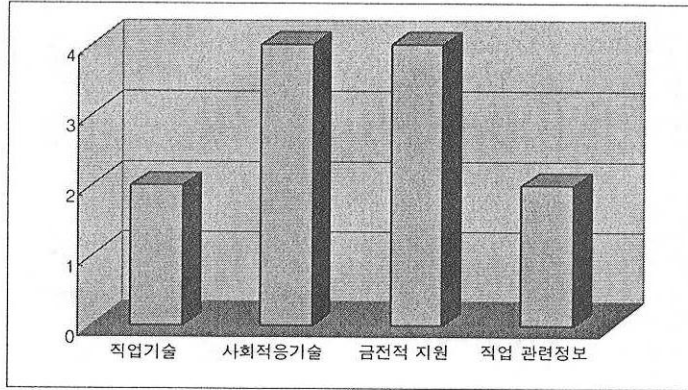




[그림 III - 6 ]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요소

(2) 현행 자립지원시설 프로그램 중 강화 또는 추가되어야 할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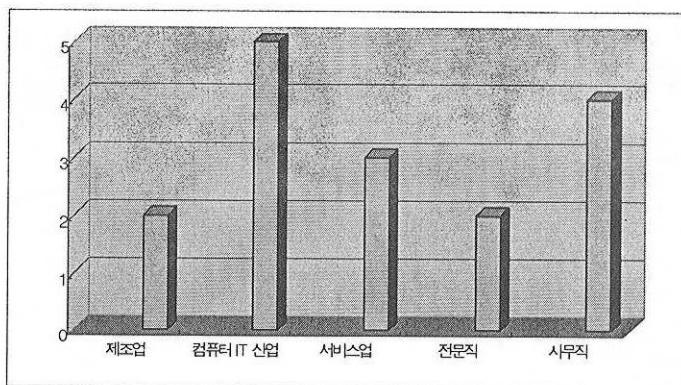
현행 자립지원시설 운영 프로그램 중 강화 또는 추가되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복응답을 요청한 결과, 청소년자립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의 문항과 유사하게 사회적응기술과 금전적 지원(4개)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직업관련정보와 직업기술훈련이 2개의 응답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서도 직업알선과 기타문항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이중 금전적 지원에서 시설참여 청소년을 위한 기초생활 및 생계비 지원을 강조한 사례도 있었다.



[그림 III- 7] 강화해야 할 시설 프로그램

## (3) 프로그램 참여청소년이 훈련받거나 취업을 하고 싶은 직업

자립지원시설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이 훈련받거나 취업을 받고 싶은 직업군을 중복하여 응답하도록 한 결과, 컴퓨터 IT산업이 5개의 응답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4개), 서비스업(3개) 제조업과 전문직(2개)의 순서였다. 문항에 제시된 자영업과 기타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그림 III- 8] 훈련 또는 취업하고 싶은 직업군

#### (4) 현행 자립지원시설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한 프로그램

현재 자립지원시설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중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주로 직업훈련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적금관리와 성과에 따른 훈련비 지급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여가프로그램과 심리치료 등을 들고 있었다.

#### (5) 청소년이 자립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것

자립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요소에 대한 폐쇄형설문 응답이외에 청소년들이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 생계비 보조 등 경제적 지원(6개 시설)이 가장 많았고, 직업교육(2개 시설)이었다. 이 외에 빈곤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인식변화, 사회적응기술 습득을 위한 상담 등을 들었다.

### 4) 자립프로그램 이수결과

#### (1) 주 취업업종

자립지원시설을 퇴소하여 취업한 청소년의 경우 가장 많은 직종이 제조업이었으며(50%), 그 다음이 서비스업(30%),사무직(10%)의 순서였으며, 이 외에 간호조무사, 판매직, 대학원진학 등이 있었다.

#### (2) 자영업 대 취업비율

자립지원시설 퇴소청소년이 직장에 취업하는 비율은 전체

70%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30%는 자영업으로 취업비율이 훨씬 높았다.

### (3) 평균재직 지속율

자립지원시설 퇴소청소년이 직장에 취업했을 경우 한 직장에 1년 이상 계속하는 비율은 약 45%정도로 나타났다.

## 5) 자립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견해

### (1)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자립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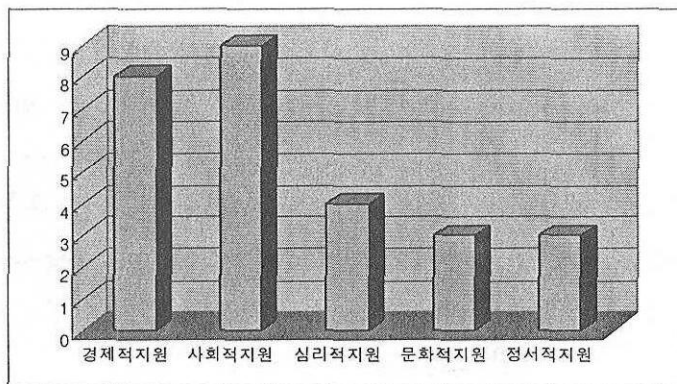
국가에서 자립지원시설을 지원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3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총 18건의 응답 가운데 5건이 운영비와 시설비의 지원이었으며, 4건의 응답이 상담 등 전문 인력의 배치, 그리고 종사자의 근무여건 3건, 나머지는 다양한 빈곤계층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 입소기간과 입소자격 확대, 직업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원했다.

### (2)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국가의 복지지원

국가가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야 할 복지지원방안 3가지를 응답하도록 한 결과, 총 17건의 응답 중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이 5건, 생계비지원과 사회기술 및 인성교육이 3건으로 같은 건수의 응답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교육기회확대를 위한 장학금지원, 의료보험, 주거지원 등의 내용이었다.

### (3) 사회복지실천 측면에서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방안 3가지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경제, 사회, 심리, 정서, 문화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응답지를 주고 필요한 방안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사회적 지원(9개)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지원(8개), 심리적 지원(4개), 정서와 문화적 지원(3개)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III - 9] 청소년 자립을 위한 복지지원

### (4)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자립지원시설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제도적으로 자립시설에 있는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개인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법제화해야하고, 이와 더불어 제도개선을 통해 자립지원시설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적 운용을 희망하며, 시설 입소자격을 확대하고 입소기간을 연장을 희망하는 의견이 전체 13건의 응답 중 각 3건이었고, 나머

지는 자립지원시설이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증장애인, 정신장애인, 여성 등 복지의 대상 분야별 자립지원시설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상호보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시설의 개보수지원과 운영비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이러한 자립지원시설의 실태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20개 자립시설 중 13개 시설이 조사에 응하였으나, 이중 3개 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하고, 대체로 질문에 응답한 자립시설 10개도 문항에 따라서 응답을 누락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많았다. 몇몇 자립시설 관계자를 면담하고 통화를 한 결과, 자립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그리 큰 어려움이 없으나, 여타의 자립시설은 해당청소년 수급에도 곤란을 겪고 있어 시설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조사지에 응답한 시설도 60%만 편제정원을 채우는 형편으로 전체적인 자립시설의 구조와 운영체계의 부실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현재 자립지원시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직업훈련과 알선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상담사업도 병행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 아동복지시설과 연계된 자립지원시설로서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개발할 때는 주로 시설에서 정해진 정관과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립지원시설 이용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1개 시설만이 있다고 응답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선정에 있어 참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반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시설은 재정적 곤란과 함께 시설에 대한 사회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설이용 청소년 수급의 문제와 전문인력의 미확보

도 자립지원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자립지원시설 청소년이 자립하는 데에는 경제적 지원 중 생계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빈곤계층 청소년은 문제청소년이라는 사회적 편견도 빈곤계층 청소년이 자립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립지원에는 상담 등 심리적 지원과 문화시설 할인혜택 등 다양한 문화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이한 것은 문항에 대한 응답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청소년 자립과 관련해서는 금전적 지원 못지않게 사회적응기술 훈련 등 사회성원으로서의 역할 능력함양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립지원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의 경우 가장 많이 취업한 직종이 제조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업, 사무직 순서였다. 이는 자립지원시설에서 시행하거나 다른 직업 훈련기관과 연계한 직업교육이 여전히 첨단산업 등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 취업 청소년 중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 자립지원시설 퇴소 후에 사후관리체계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가가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해 자립지원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내용은 운영비와 시설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도 생활지도와 상담 등 전문 인력의 배치와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국가가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과 직업알

선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이외에도 생계비 지원과 사회기술 및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제공을 요청하였다. 특히 경제적 지원보다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 우선적이라는 응답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자립지원시설과 빈곤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경제적 지원과 직업훈련 및 알선 등 기존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주체적인 사회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다양한 사회기술과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 IV.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1.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2. 자립지원체계
3.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정책제언

공 백

## IV.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 1.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은 빈곤을 고려한 상태에서 청소년이 가진 자립 동기를 촉진하여 잠재적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하여 삶의 길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둔다. 이는 사회적으로 볼 때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직결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개발 다시 말해 청소년을 하나의 인적자원으로서 개발하는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인적자원개발을 구체화하는 내용과 방법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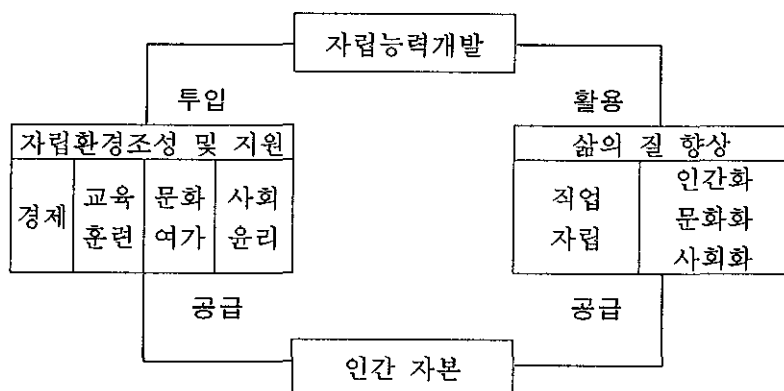
빈곤계층 청소년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주요한 인적 자원이다. 그러나 빈곤으로 인해 나타나는 갖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경제 및 문화적 여건과 상황을 외면한 채, 성인주도의 인적자원개발 대상으로 인식하여 개발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일반청소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도 청소년의 참여와 개발을 통하여 청소년의 현실과 욕구 그들의 열망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적자원개발로서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이란 인간됨의 향상(인간개발 : 인간화·문화화)과 개인적 능력의 신장(인적자원개발 : 주체적 역할 기능화)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회화(socialization)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개발은 i) 청소년의 인간성을 발전시킴과 아울러 자신의 개인적·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게 하며, ii)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 속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

회적 학습과정(a social learning process) 그리고 iii) 한편으로는 이들의 개발을 돕기 위한 환경적 요인을 재정향(reorientation)해 가는 사회적 노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이란 하나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인데, 이는 ‘개발의 주요수단이며 동시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그 인적자원개발의 우선적 목표집단(priority target group)으로 삼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0:16-137. 참고).

인적자원개발로서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앞에 청소년개발에서 언급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의 재정향’이다.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에 필수적인 요건은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의 안정이다. 국가와 정책적 차원에서 이를 위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빈곤가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또한 종교 등 민간사회복지단체나 이웃활동을 통해서 빈곤계층 청소년이 속한 많은 빈곤가정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빈곤가정이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고 최소한의 삶의 영위하는 데에도 아직은 많은 부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일차적 요건은 빈곤계층이 속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수당 등 다양한 방향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빈곤계층 청소년이 자아정체감을 찾아가고 아동에 비해 훨씬 빈곤으로 인해 독립적 영향을 받는다는 면을 고려한다면 빈곤계층 가정이 물질적 결핍과 경제적 불안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여건과 상황 그리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빈곤은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교육은 물론 다양한 양질의 문화와 여가 그리고 친사회적 윤리를 습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이

런 면에서 환경적 요인의 재정향이 사회구조의 변화를 도모하는데 있기도 하고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지만, 이와 함께 빈곤계층 청소년이 빈곤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가정, 사회 환경적으로 불리한 여건의 개선이라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는 적절한 양질의 교육과 훈련의 기회제공, 다양한 문화와 여가 프로그램에 접근 및 참여, 바람직한 사회윤리 형성 등이 자립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요소로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빈곤계층 청소년에 대한 가정 및 청소년 개인을 통한 직간접적인 자립 환경 조성 및 지원은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 능력개발에 핵심적 내용으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형성된 자립 능력은 현재와 미래에 빈곤계층 청소년이 삶을 질을 제고하는데 활용됨으로써 이는 그들에게 직업적 자립능력을 통해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하여 사회화되고 문화화된 인간으로서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질의 인적자원은 결국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주요한 인적자본으로 공급됨으로써 그들을 통해 새로운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바람직한 순환과정을 도출 할 수 있다([그림 IV-1] 참고).



[그림 IV-1] 자립능력 개발 순환 과정

## 2. 자립지원체계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정책적 방안을 수립과 함께 자립의 전 과정을 효과적이고 타당성 있게 운용하고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자립지원체계는 정책의 전달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능력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자립지원시설의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현행 자립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자립지원구축의 방안을 제시한다.

### 1) 기본방향

현재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과 관련된 복지지원사업의 핵심은 자립지원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이다. 2003년 현재 전국에 20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태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시설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절반이상이 주로 시설퇴소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및 알선과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취업과 직업훈련 등 관련하여 직업(일)은 자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빈곤계층 청소년에 대한 자립은 직업훈련과 취업지도 및 알선만으로는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이미 실업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논하는데 있어서도 직업훈련과 취업기회 확충의 프로그램 만으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강무섭(2000)은 실업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통로와 방법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들이 생애에 걸쳐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훈련체제

가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빈곤계층 청소년을 포함한 실업청소년에 대한 이광호의 분석은 흥미롭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무직 미진학이라고 지칭하는 청소년들은 우리 부모들의 ‘내 자식’이라는 튼튼한 울타리에 숨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거나, 길거리나 우리가 포착하기 어려운 어떤 곳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수치로만 존재하는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의 실체를 확인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나 직업능력의 렌즈로는 찾아내기 어렵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자원이라는 새로운 시각과 최소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실질적인 지원과 기회부여, 서비스를 통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낼 뿐이다. -중략- 이들은 우리 사회가 누구에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와 자원을 배분하고 있는지를 직시하고, 개인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다소 부담하더라도 적어도 군대를 가거나 결혼을 하는 등의 전환점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가족과 연합하거나 길거리에서 인내하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까지는 이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야 하는, 직업훈련이라는 이름의, 이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원과 기회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빈곤계층 청소년은 매우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다. 이들은 사회에 대해서 냉소적이면서도 철저히 무기력하고 또한 기회를 엿보는 등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여있다. 이에 더하여 이들은 당장의 경제적 궁핍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하며, 동시에 자존감 있는 인간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이 실체는 있어도 나타나지 않아 정책 수립과 실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끌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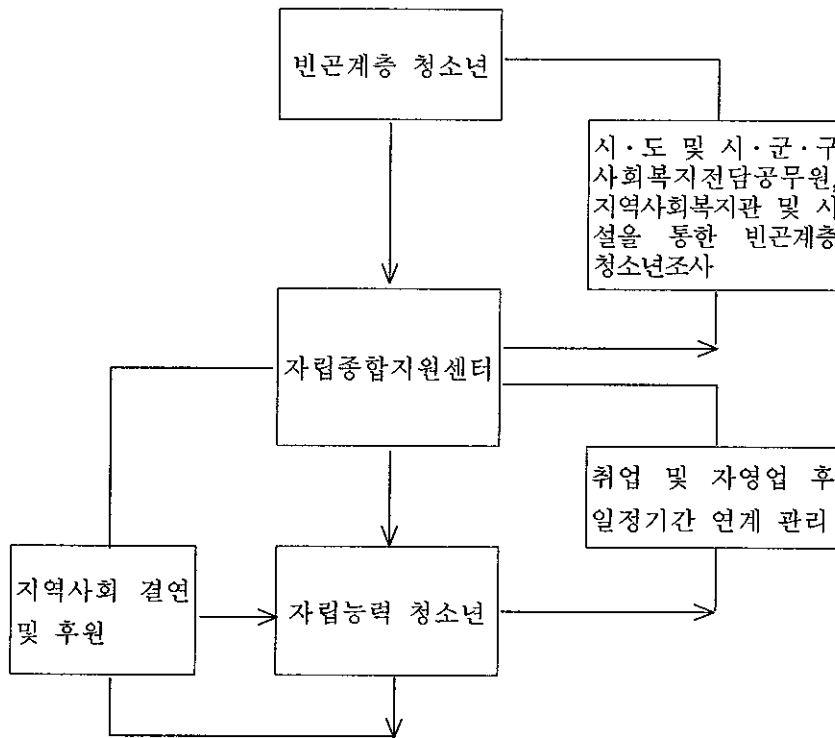
는 방법이 곧 이들에 대한 형식적이고 잔여적인(residual) 복지지원의 모습이 아닌, 새롭게 그들과 함께 하는 복지적 지원 즉, 사회에 소외계층인 이들에게 단순한 직업적 능력의 개발과 취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최소한의 서비스제공에서부터 한걸음 나아가 이들이 자발적으로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중요한 사회성원으로 역할을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구조화된 자립지원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빈곤계층 청소년들이 직업교육 및 알선과 함께 개인별 생계비 지원, 사회기술습득, 취업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사회적 연대와 결연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상호 연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2) 자립지원체계의 구축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빈곤계층 청소년이 자립의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유인가의 제공하는 일이다. [그림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립지원체계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종사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있는 빈곤계층 청소년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해당청소년을 파악하여 자립종합지원센터(가칭 : 이하 종합센터)에 연결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립지원체계의 핵심적 구조가 되는 종합센터는 현행 운용되고 있는 자립지원시설과 자립지원센터를 통합한 모형으로 빈곤계층 청소년이 숙소를 제공받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종합센터를 통해서 자립능력을 함양한 청소년은 취업 또는 자영업 등 직업



을 가정으로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또한 자립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기초적인 자립능력을 갖춘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사후 지원하며 관리하는 한편, 이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자원과 결연 및 후원을 실시하고 이를 관리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서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이 개인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연대와 유대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포괄적인 자립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림 IV-2]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체계

### 3) 자립종합지원센터

자립종합지원센터는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들이 자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직업기술과 기회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충족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완전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있다.

이처럼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청소년을 대상(target)으로 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구조 또는 기능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청소년도 포괄적인 대상이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자립종합지원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빈곤으로 인한 가정 또는 지역에서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정서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청소년에게 초점을 두어, 그들이 자기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립훈련 및 교육 그리고 자립환경의 조성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데 있다. 그러므로 자립종합지원센터는 빈곤계층 청소년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 (1) 기능

이러한 자립종합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① 진로지도

앞서 빈곤계층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적합한 직업을 찾고, 이와 관련하여 직업

관과 사회의식을 함양하는 일이다. 따라서 자립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직업훈련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진로지도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직업훈련 및 창업지도

직업훈련은 자립지원의 핵심적 기능이다. 자립종합지원센터가 직접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 보다는 직업훈련기관과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직업훈련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취업 외에 창업을 원하는 청소년에게는 소규모 창업 등을 지도하고 창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제식 교육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직업을 탐색하고 실제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는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

#### ③ 직업 및 생활정보제공

자립종합지원센터는 진로-직업교육-취업과 생활정보의 기능이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제공해야 한다.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선할 뿐만 아니라 취업 후 사회인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 ④ 자금융자알선

자영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자영업종 개발과 교육을 시키고 아울러 공공기관 등을 통해 일정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후원해 주는 역할도 있어야 한다.

#### ⑤ 상담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자립종합지원센터는 상담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거나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해당청소년의 진로상담뿐만 아니라 인성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바람직한 정서를 함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⑥ 문화적 지원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종합지원센터에서의 문화적 지원

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업교육과 병행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유인가를 촉진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성과와 문예활동교습비 등을 연계하는 등의 문화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지역사회나 공연단체와 연계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주선했 주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할인카드제도의 내용 중 빈곤계층 청소년이 사회적 낙인이 없는 가운데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⑦ 생활교육

빈곤계층 청소년이 현재 및 미래에 보다 높은 질의 삶을 성취하고 영위하도록 경제 및 문화, 가정 등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⑧ 취업 후 관리

앞서 자립지원시설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현행 자립지원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립종합지원센터는 직업교육 및 훈련 후 직업알선과 자영업지원과 더불어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자영업을 하거나 취업한 청소년과 연결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⑨ 지역사회 결연 및 후원

그 동안 빈곤계층 아동에 대한 결연과 후원사업은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런데 여전히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빈곤계층 청소년에 대한 사회 결연과 후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빈곤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결연 및 후원은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빈곤계층 청소년도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는 소속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자율적이고 자긍심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⑩ 개별생계비 지원

자립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국가와 민간단체 또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개별생계비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식료품비는 물론 주거에 따른 일정 비용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능도 탐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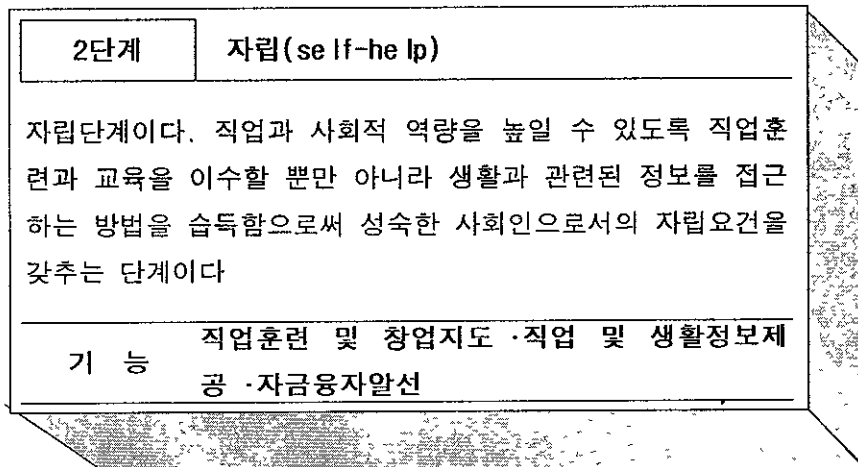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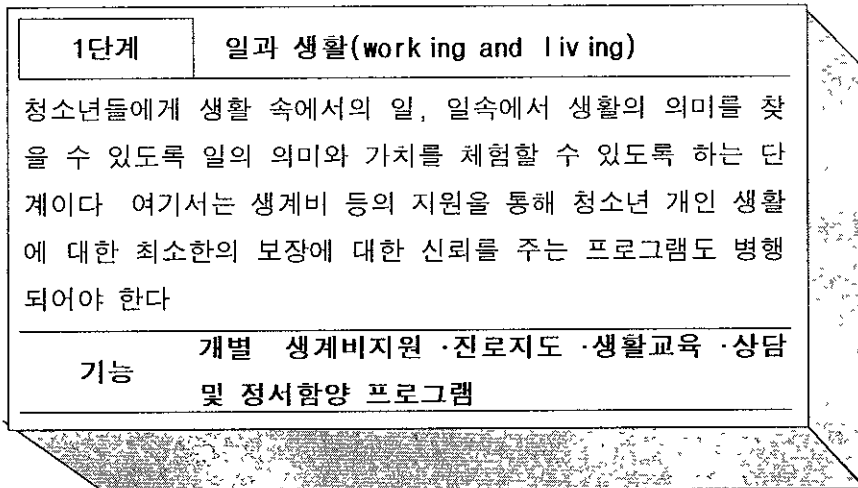
### ⑪ 실태조사

자립종합지원센터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빈곤계층 청소년의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정하는 일이다. 이러한 조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지역의 사회복지관 또는 청소년회관 등과 협조아래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빈곤실태와 성격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자립지원정책과 센터 운영의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생생한 기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2) 청소년 자립과정

이와 같은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은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례관리는 한 빈곤계층 청소년이 자립지원체제로 접근할 때부터 이들의 의식주와 의료, 직업, 정서와 문화생활 및 가정환경까지도 포괄적이고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안별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점진적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 단계를 이수해 나감으로써 자립능력을 순차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을 반드시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과 청소년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여기서는 이 과정을 단계별 영어 약자를 구

성하여 WRI으로 부르기로 한다.



| 3단계                                                                                         | 삶의 질(quality of life)      |
|---------------------------------------------------------------------------------------------|----------------------------|
| 지속적으로 삶의 질을 관리하고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연결을 통해서 연대감을 고취시키는 단계로서 한 차원 높은 자립을 성취하도록 돕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                            |
| 기 능                                                                                         | 취업후 관리, 지역사회결연 및 후원·문화적 지원 |

### (3) 운영

자립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형식으로 운영하되, 정부에서 재정지원과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은 사회복지 또는 청소년관련 단체에 전부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이들 단체와 기업이 연합조직을 구성하여 위탁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 물론 이에 따른 문제도 적지 않겠지만, 결국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이 경제적 및 비경제적 지원을 통한 경제적 생활의 안정과 이를 토대로 한 높은 삶의 질의 구현이라고 보았을 때 어떤 형태로든 기업과 청소년 및 복지단체의 연합을 필요하고 또한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자립종합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2개 정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자립종합지원센터는 빈곤계층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빈곤계층 청소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근시킬 수 있도록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또한 다양한

시설의 가상공간이나 창구를 통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센터의 운영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자립종합지원센터의 핵심 운영인력은 정부관료, 시민단체운영자, 사회복지전문가, 문화예술전문가 및 진로교육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인력은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전문가 등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빈곤계층 청소년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역할과 직접 진로 및 심리상담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3.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정책제언

자립능력개발은 인적자원개발과 사회개발 전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미 경제성장 자체가 빈곤문제를 근절할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하고 이에 따라 고용창출을 통해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빈곤의 문제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자립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선행조건은 기본욕구의 적절한 충족이다.

기본적 욕구의 접근은 정부로 하여금 기존의 사회계획과 대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곤계층의 미충족된 욕구를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영양, 위생과 주거와 같은 기본 생존욕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더하여 두 번째 욕구는 생존에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사회가 그 시민들을 위해서 보장하여야 하는 사회적 권리이다. 여기에는 교육, 보건, 사회보장의 욕구를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세 번째 욕구는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차별에 대해서 보호



를 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성장을 위해 동등한 기회를 가지는 욕구와 같은 비물질적인 욕구가 있다.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기초지원이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자립을 위한 동기와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계층 청소년들이 양질의 사회적 자원으로 개발되도록 좋은 교육과 직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사회적 연대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생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기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개인의 성장 및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에서 자립능력개발이 추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자립을 위한 기초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기초 환경의 토대위에 미래의 직업적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며, 셋째 직업교

<표 IV-1> 욕구에 대한 자립능력개발 대응형태

| 기본욕구          | 대응자원(개발방안)                                                               | 자립능력과의 관계성                           |
|---------------|--------------------------------------------------------------------------|--------------------------------------|
| 의·식·주         | 1) 청소년수당                                                                 | 기초 환경조성                              |
| 교육·의료·보건·사회보장 | 2) 직업훈련과 진로지도<br>3)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자영업지원                                    | 미래의 직업적 자립능력 고양                      |
| 참여·기회균등·성장    | 4) 청소년카드제도입·<br>5) 문화여가활동프로그램 제공<br>6) 사회적 관계망 형성<br>7) 참여를 통한 사회윤리의 내면화 | 현재 삶의 개선을 통한 자립능력확보 및 기회 창출과 삶의 질 향상 |

육과 훈련 외에 현재 빈곤한 삶과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자립만이 아닌 진정한 전인적 자립능력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이에 따라서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 1) 간접지원

### (1) 자립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활성화

앞서 제시한 자립종합지원센터는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체계구축에 핵심적 부문이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관련된 자립지원시설(센터) 등 전국적으로 20개의 시설이 주로 퇴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지도, 직업교육, 사회생활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지원시설의 실태에서 보듯이 이들 시설은 관청 등 공공의 통로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고, 홍보 등의 부족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명목상 시설만 설치되어 있을 뿐 대부분 2명의 인건비 이외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 프로그램의 실시 이전에 구성과 개발에도 벽찬 실정이다. 또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청소년자립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 등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청소년 자립지원시설(센터)을 대폭 보완하여 독립적으로 빈곤계층 청소년을 조사하고, 청소년 자립과 관련된 각종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실행하는 자립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활성화를 통해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자립 환경을 조성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사회적 소속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 (2) 사회의 노동인력으로서의 정당한 대우

우리의 노동시장에서 청소년계층은 고용불안정과 실업에 성인 계층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어수봉, 1992; 조우현, 1995. 참고).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청소년계층의 노동은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산업화 초기에는 아동과 여성노동자 등과 같이 노동집약적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노동조건아래서 일을 한다. 이러한 열악성은 성인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압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동시장분절론에서 보듯이 자본주의의 안정과 유기적 구성은 노동시장의 주요한 인력이었던 청소년계층의 노동자를 배제한다. 따라서 청소년노동자는 실업과 불안정한 취업의 계층으로 남게 된다. 다시 말해 청소년노동계층은 자본주의 사회에 산업예비군으로서 새로운 직종의 확대에 기여하지만, 그 직종이 정착되면 다시 밀려나는 악순환 속에 불안정한 취업상태와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 이에 대한 복지적 대책은 청소년 계층의 교육과 훈련이었다. 청소년노동자들을 청소년의 범주 내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소극적인 보호의 차원에서 보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청소년노동자를 노동의 범주 내에서 바라볼 때에는 청소년노동자의 문제와 욕구에 핵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단지 보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로서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문병길, 1991 : 3).

## 2) 직접지원 : 정책적 제언

### (1) 청소년 수당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빈곤계층 청소년이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보면 아동연령층에 속한다. 따라서 아동의 복지수당을 일정연령까지 연장한다면 어렵지 않게 정책화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저출산율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아동수당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고, 미국의 경우 아동을 가진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복지지원프로그램인 AFDC가 있지만, 개별적 아동에 대한 지원보다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수당과 관련이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사망, 폐질, 심신장애, 이혼, 가출 등으로 만 20세 이하의 소년, 소녀가 가정을 이끌어감으로써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를 의미한다. 이들에게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의 수혜뿐만 아니라 학생인 경우 교통비와 부교재, 피복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자립할 수 있는 시설과 연계해 주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지원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나, 부모가 생존해 있지만, 기능적으로 결손된 가정 또는 유기나 방임되고 있는 청소년들은 유사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굳이 이런 면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의 경우처럼 가정중심의 금전적 지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빈곤계층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수당에 대한 검토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청소년들의 면접조사와 자립지원시설 실태조사에서도 일정부분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역설적으로 미국

에서 전통적인 아동복지정책으로 시행 중인 AFDC에 대한 재정적 투여에 비해 효과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아동수당의 신설과 함께 특수한 청소년을 위한 수당제도의 도입이 조심스럽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 (2) 진로지도와 직업훈련

교육과 훈련은 자본제 사회에서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계층 상승 또는 이동의 결정적 기회가 된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빈곤계층 청소년은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희망과 열망을 갖게 된다. 사회는 정상적인 제도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충실히 밟고 노력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최상위계층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준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반성해야 할 점은, 이미 교육과 훈련이 공공 부문의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높은 삶의 질이 곧 사회경제적으로 최상위계층이 되는 것이라는 사회인식에도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제도교육과 훈련이 정상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하더라도 빈곤계층 청소년 중 몇 %가 이러한 위치와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논외로 하고라도, 비록 자본제 사회이지만 사회경제적 풍요가 높은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원론적일 수 있지만 직업에 대한 보다 근원적 의미를 찾는 것도 필요하다. 일을 한다는 것은 소득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갖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행복을 느낀다. 따라서 빈곤계층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진로지도해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진로지도를 통해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불필요한 환상과 좌절을 갖지 않고 보다 정확히 자신을 알고 사회를 이해하며 진로를 탐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감소함으로써 이들의 장차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직업훈련과 교육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리하여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직업훈련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추어 첨단 산업분야 관련 기능과 기술을 숙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소리가 높다.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주장이 실천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특수한 디자인을 위해 엄청난 비용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몇 년 아니 몇 개월도 가지 못해서 별 소용이 없는 프로그램이 되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첨단산업분야의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는 직업훈련기관과 기업체에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탁 교육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아울러 빈곤계층 청소년의 실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창의적인 틈새직종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영상과 미용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과 직업교육도 빈곤계층 청소년의 직업훈련과 교육을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 (3) 도제식 교육프로그램과 자영업 지원

도제식 교육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인(匠人) 또는 전문가로부터의 일대일 기술전수방식을 모형으로 한 현장중심의 기능과 기술훈련 및 장인의 직업관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된 소규모 집단의 교육형태를 상정한다.

스웨덴에서는 청소년고용프로그램의 한 단계로 청소년도제(youth trainingship)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여타의 고용훈련을 받지 못하여 적당한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훈련의 현장적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목적은 18-25세의 청소년들과 후기중등교육을 마친 17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현장실습과 직장체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이병렬, 2002 : 144). 영국에서도 1995년부터 실시된 현대적 도제제도(Modern Apprenticeships)가 직업훈련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주로 산업현장에서 훈련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제도에 비해 유연성을 갖고 국가자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중견기술자와 감독관리자에 해당하는 상급단계의 기술 습득과 자격 취득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16-17세의 졸업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제제도 훈련과정은 해당 산업분야별로 각 산업체에서 요구하거나 인정하는 기술 및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문제해결능력, 팀(team)제 작업수행, 외국어능력 등의 기초직업능력을 함께 습득하도록 하였다. 교육훈련과정은 이미 70여개 분야의 틀을 체계화시켰으며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비전통분야인 은행, 보험, 방송 등의 화이트칼라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교육훈련과정은 이수한 후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9b : 240).

이와 같은 외국의 도제식 교육제도는 현장직업훈련과 함께 직업수행을 위한 기초능력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습득하도록 하는데 특징이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도 현장숙련자에 의한 도제식 기술전수와 함께 그들의 직업관과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까지 전달하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빈곤계층 청소년들이 각자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서는 고부가가치

소득과 평생직업으로서 자신의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전통 관련 직종을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통공예품과 한과 등을 고품질로 제품화할 수 있도록 도제식 교육이지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 희망하는 빈곤계층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계층 청소년들이 한 분야의 숙련자와의 만남을 통해 인간적인 성숙을 도모하고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수련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등 다목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프로그램일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도제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 직종의 개발을 통해 직업분야별로 전문화하고 세분화함으로써 단순기능이라도 질적 향상을 꾀하여 빈곤계층 청소년 중에서도 더욱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는 장애청소년들에게 보다 고부가의 종합적인 훈련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이,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소규모 자영업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자영업에 소질이 있거나 관심을 보이는 빈곤계층 청소년에게는 자립종합지원센터등을 통하여 자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이에 따라 일정한 자금을 알선 받아 직접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교육과 융자금의 알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영업 활동현황을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 (4) 청소년카드제 도입

최근 매스컴의 강력한 영향을 수용하여 학생신분이 아닌 청소년



년에게도 교통수단이나 공공의 시설물 이용 시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소위 청소년증의 발급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 행정부처의 책임자에게서 나왔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손질하여 비진학 청소년에게 각종의 할인혜택을 줌으로써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증은 학생과 비학생의 구분을 할 수 밖에 없다는데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소외계층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환경에 접근하는데 용이하게 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방법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또 다른 낙인이나 좌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소외계층의 한 부류인 빈곤계층 청소년에게도 다양한 문화적 혜택과 사회적 권리에 접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기 생활의 독립적 운영과 사회책임의식도 함양하도록 청소년카드제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사실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카드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부터 있어왔고, 1996년에는 문화체육부가 청소년복지분야의 주요정책과제로 청소년카드제도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신선미, 1996 : 7). 이러한 청소년카드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1981년 처음 프랑스에서 등장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26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간주하며 그들에 대하여 다양한 할인제도가 존재한다. 기존의 할인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영역은 영화, 연극, 음악회 등의 문화예술분야를 제외하면 박물관, 공원, 철도 등 대부분 공공사업체의 사업들이다. 청소년카드는 여기에 식당, 의류, 학습재료, 스포츠센터 등 주로 민간업체들의 사업영역에서 각종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였다(신선미, 1996 : 12).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이러한 청소년카드제도를 도입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현재 청소년중에 대한 논의처럼 특정계층에게만 카드제를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빈곤계층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청소년카드를 통해 각종의 할인과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면 복지의 결과만 염두에 두었을 뿐 복지의 수단적 가치의 정당성은 결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카드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카드제 범위 내에서 연구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빈곤계층 청소년이 카드사용을 통한 각종 낙인 등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청소년에게 할인카드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게 하고 빈곤계층 청소년에게는 동일카드를 최소한의 가격 또는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문제도 적지 않겠지만, 정책과 민간단체의 청소년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좋은 결실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5)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문화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청소년에게 이러한 문화는 기성세대에 의해 제공된 문화에 적응하면서도 청소년들은 나름대로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빈곤계층 청소년은 기존의 성인문화에 긍정적이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의 건실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자원이 부족하다.

단편적인 시각일지 몰라도 우리의 교육 형편상 빈곤계층 청소년들에게 30여 년 전처럼 의무교육을 포함한 정규제도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노력을 해서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을 있는 가능

성이 훨씬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서 빈곤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좋은 교육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다양한 교육기회에 접근이 차단되기 때문에 사회와 개인이 원하는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능력형성이 힘들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에게 첨단고부가가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통로는 열려있지 않다. 따라서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그들에게 장차 보다 높은 삶을 질을 통제하고 운용하는 기반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질 높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초적 여건인 직업적 능력과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문화적 지원은 방송과 서비스 산업에 진출했을 때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훨씬 적극적인 태도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키워줄 수 있다는데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지원정책이 문화와 청소년정책의 차원에서 개발되고 제공되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화적 정책지원은 기존의 경제, 사회, 심리적 지원통로를 통해 새로운 사회현상과 상황에 적합한 규범과 사회적 관계망을 스스로 정립하는 자기결정과 신념체계를 내면화함으로써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점에서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지원은 보이는 현상에 대응하는 대중적이며, 단순히 돕는 서비스(helping services)의 단차원적 복지문화에서 벗어나 청소년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현재와 미래사회에 적응하여 자립하도록 돕는 서비스(self-helping services)'로서 연계적 통로를 형성하는데 있다(노혁, 1997 : 66. 참고). 이는 곧 빈곤계층 청소년 자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초요건이 될 수 있다.

## (6)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람은 정보(information)를 섭취하여 자신의 모습을 형성해 가는 정신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생리적 존재로서 사람은 동물과 같이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며 찌꺼기를 배설하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밟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의 정신적·사회적 모습을 만들어 가는 정보 신진대사의 존재이다. 생리적 조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유현상, 인격적 주체 그리고 대인관계로 확장한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요소의 관계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상호 의존하는 것으로 생리조건에서 보면 후천적 경험을 정리하는 형식이 되고, 이 형식에 담긴 내용은 바로 그 사람의 가치체계인 인격이라는 개인의 정체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반면에 거꾸로 살펴보면 사람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는 그 사람의 내면적 가치체계와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고 이는 결국 생리적 조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홍기선, 2002 : 27-29). 이처럼 개인의 생리적 조건과 생각 그리고 가치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대인관계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따라서 어떤 대인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빈곤계층 청소년이 형성하는 대인관계는 관계의 넓이나 깊이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빈곤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및 심리적 고통 등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기도 힘든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래 및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질이나 양적으로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절치 못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많다. 이는 결국 자

립을 위한 사회 환경 자원의 부족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혈연 공동체보다도 사회공동체가 더 중요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해 교육정도, 취미, 사회경제적 수준, 문화적 동질성 등이 대인관계를 맺는 기준이 되고 이것이 인간의 삶과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사회 환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성공과 삶의 질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다.

빈곤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은 올바른 대인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게 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중요한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는 빈곤계층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으며, 나아가 친사회적 성향을 추구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화과정을 거쳐 나가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은 정신적·사회적으로 가정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건강한 사회구성원 또는 가정이 집단으로 빈곤계층 청소년 몇몇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사회복지분야에 간간히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결연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시책이다. 결연사업이 일대일 관계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물질 및 비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관계였다면 사회적 관계망은 집단적 후견제라 볼 수 있다. 집단적 후견제도는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가정 및 개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계층 청소년에게도 보다 많은 사회적 자원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결연과 후원은 물질적인 지원 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이고 비물질적 사회적 관계자원(social network resources)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클 수 있을

것이다.

### (7) 참여를 통한 사회윤리의 내면화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권리로서의 복지(welfare rights)를 주장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복지의 수혜자들도 복지에 주체로서 적극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일부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의 권리도 개인의 권익과 권리를 옹호하는 수준에서 소위 제3세대의 권리라고 집단적 수준에서 정의되는 권리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즉 제3세대의 인권은 그 실현에 의해 개개인이 명백히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개개인에게 적용되기 보다는 지역사회, 전체 국민, 사회 또는 국가에 해당되는 권리들이다. 이는 경제개발에 대한 권리, 세계무역과 경제성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결집력 있고 조화로운 사회에서 살 권리,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공기에서 숨 쉴 권리,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자연'을 경험할 권리 등과 같은 환경권을 포함한다(김형식·여지형 역, 2001 : 61).

그 동안 사회복지의 주된 관심은 사회경제발전에 따라 생성된 부(富)를 평등하게 재분배하는 당위성과 방법에 있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 20세기 후반에 불어온 신보수주의에 영향을 받아 복지와 노동을 연계시키는 등 복지수혜자의 사회적 기여와 수혜를 연계하고 있다. 아직 사회의 안전망조차 확보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복지와 노동의 연계, 복지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자칫 복지규모의 축소화를 불러와, 그렇지 않아도 사회 자본의 극심한 편재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계층과 차상위 계층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복지가 항상 사회적 재분배의 정당성만 요

구하면서 사회통제적 기능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도 당당하지 못한 모습만 쫓고 있을 수는 없다. 사회복지의 욕구와 자원의 적절한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관심은 인간욕구의 정당성을 전제로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은 자원의 개발과 그에 따른 과실의 형평성 있는 배분을 요구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순환이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간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는 적지 않다. 이제는 한번쯤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에 대해서 복지적 관심을 쏟아보는 일도 필요하다.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참여를 통한 사회윤리를 내면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개발은 욕구의 억제와 근대 자선시대에 빈곤계층에게 요구한 중산층의 도덕심을 강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면을 고려할 때 가정과 개인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은 일차적이며, 이에 더하여 그들이 결코 혼자 소외되어 생활하는 미래가 아닌 앞서서 장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능력과 동기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참여를 통해서 사회와 자신이 새로운 사회윤리를 구축해 나가며 이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급속한 경제개발과 물질적 풍요가 결코 인간의 행복한 상태와 직결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적 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참 의미를 통찰하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인간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철학과 맥을 같이한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것은 보다 적극적인 능력부여(empowerment)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계층 청소년의 경제와 정신적 등 전인적 자립을 위한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 백



## V. 결 론

공 백

## V. 결 론

미국에는 ‘빈곤대책’을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나 각 주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은 제한을 받는다. 강력한 사립 자선단체가 아무리 활발하고, 관용적이고, 헌신적이라 해도 그것을 보충하는 데는 부족한 것이다. 개인의 사적인 자선의 관념에 의지하고 국가가 사회권리를 확보해주는 것을 믿지 않는 사고방식은 순수하고 엄격한 자본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 논리에 따르면 불평등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경쟁의 자극이 되고 그것이 공동사회에 혜택을 베풀어준다고 하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빈곤은 정치문제가 아니며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도덕과 자선의 문제이다’(김이랑 역, 1994 : 184-185).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은 가난한 사람을 사회의 안정을 위한 적절히 통제하거나, 전통적으로 가진 자가 보여 온 자비심이상을 나타낸 적이 없는 듯하다. 아직도 빈곤계층을 보는 시각은 경제사회에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낙오된 사람으로서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실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적지 않은 빈곤계층이 체감하는 현실이다. 물론 이들 빈곤계층의 체험이 다소 편협하고 왜곡된 자의식으로 인해 과장된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사회적 소외계층인 이들의 아픔은 상상보다 크다. 더욱이 오로지 선택한 것이 아닌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다는 이유로 갖가지 사회적 제약과 고통을 받는 빈곤계층 청소년이 갖는 괴로움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아동에 비해서 훨씬 더 사회적인 존재이며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라고 볼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이상으로 갖가지 문제에 부딪혀 심리적인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교육기회, 그리고 건강한 생활인이 되고 자아를 찾기 위한 문화적 소양을 축적할 동기와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인간은 자율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한다. 즉, 자립적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가 행복한 상태를 목표로 할 때 그 구체적인 전략은 자기와 사회에 대해서 자립적인 인간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인간이 자립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기본적인 생활이다. 의식주가 안정되고 가정과 사회가 각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보장받는 것이다. 그 안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불행히도 빈곤계층은 가장 기초적인 경제적 안정에 위협을 받는다 특히 이러한 계층에 속한 청소년들은 불안한 경제적 생활이 현재의 삶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생활을 상징할 때도 커다란 그림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계층 청소년에 대한 일차적인 복지지원은 개인의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생활이 담보된 상태에서 빈곤을 벗어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능력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 지원을 토대로 하여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지원은 자립을 위한 직업능력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심리, 사회, 문화적 지원이다. 빈곤계층 청소년이 갖는 심리적 박탈감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빚어지는 갖가지 문제를 직업적 기술능력을 함양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분적으로만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빈곤계층 청소년들이 사는 또한 앞으로 살아갈 사회가 직업기술 능력

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소양 등이 생활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문화적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자발적으로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빈곤계층 청소년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인식을 재확인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립지원형태 중 하나인 자립지원시설의 실태를 통해 자립지원의 문제점과 합의 그리고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경제와 사회 그리고 정신적 자립 등 전인적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립지원시설을 보강하여 ‘자립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 아울러 복지적 관점에서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제언을 물질과 비물질적 지원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체계와 정책적 제언은 궁극적으로 그 동안 복지수혜자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 자기와 타인의 욕구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통제하고 적절한 사회개발 전략에 참여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연대의식을 함양으로 개인의 복지가 아닌 사회적 공동의 복지를 지향함으로써 진정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이는 다음의 글을 통해서 보다 뚜렷해 질 수 있을 것이다.

Albert는 자본주의를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미국과 영국 중심의 자본주의 형태를 네오 아메리카형 그리고 독일, 스위스 등의 자본주의 형태를 라인형으로 불렀다. 거의 순수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듯한 개인 경쟁중심으로 네오 아메리카형은 지나친 경쟁으로 투기화, 거품화될 위험이 존재하며, 집단주의 성향의 라인형 자본주의는 새로운 도전과 야망을 꿈꾸는 젊은 사람들에게

계는 너무 안정지향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개발도상국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치자 ‘만일 어떤 국가에서든지 생활할 수 있다면 북아메리카와 서유럽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합법적인 이민의 생활조건으로 유럽이 나쁠 것은 물론 없다. 급여는 미국과 같고 사회보장도 있고, 미국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아파트까지 라인형 국가들에서는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을 선택할 것이다. 특히 젊은층은 절대적이다. 남미와 아시아에서는 아무도 유럽의 생활수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데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공산국가인 중국이다. 아마 아프리카나 동구권에서도 과반수의 사람들이 북아메리카 특히 캐나다를 선택할 것이다. 캐나다는 스칸디나비아보다 인기가 높은 것이다. 왜일까? 이 의문을 제기한 것은 먼저 경제적인 개인 그리고 공동체 행동의 합리성에 대해서 되묻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가 엄격한 이익 논리에만 따른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커다란 오류이다. 또 경제주체가 어떤 결정이 좋은가 나쁜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비로소 행동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개개인 이익의 총액이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잘 조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논리가가 논증을 근거로 수학적으로 행동하고 냉정히 계산된 결론을 내리는 엄격한 논리적 인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상적인 호모이코노믹스(경제적 인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정열, 비합리적, 변하기 쉬운 유행, 열광적인 흥내내기 이러한 요소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경제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사람들의 눈에는 라인형 자본주의가 고결, 평등, 신중 조심스럽다고는 해도 매력이 부족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아

메리카형은 화려하고 신화가 풍부하다. 로맨틱하게 대중의 정서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김이랑역, 1994).

우리가 선택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혼자만 잘 사는 복지가 아니라 다 함께 잘 사는 복지방향에 대한 고민은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것은 복지공급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지수혜자들도 적극 참여하여 논의함으로써 비록 가난하지만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복지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지점이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의 결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순희 · 이병희 · 최강식(1999). **지식경제와 직업훈련**.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권순원 외(1993).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대책**.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기획예산처(1999). **생산적 복지분야 정책토론회 자료집**. 기획예산처.
- 김성이 · 김상균(1997). **사회과학과 사회복지**. 서울 : 나남출판.
- 김영모(1990). **한국빈곤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 김영종(1992). **복지정책론**. 서울 . 형설출판사.
- 김종일(2001). **복지에서 노동으로**. 서울 : 일신사.
- 김태성 · 송근원(199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나남출판사.
- 김형식(1993). **“외국 청소년복지의 현황과 전망”**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형식 · 여지형 역(2001).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 인간과 복지.
- 노동부(2000). **청소년 실업대책**. 국무회의 보고자료.
- 노혁(1995). **청소년복지간접자본론**.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노혁(1997).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적 지원정책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혁(2001). **“청소년과 생산적 복지”** 한국아동복지학 제10호.
- 노혁(2002). **청소년복지론**. 서울 : 대학출판사
- 노혁(2003). **“가족복지의 이념과 방향”** 나사렛논총. 제8호.
- 문병길(1991). **“우리나라 근로청소년의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순일(1994).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서울 : 일신사.
- 박용순(2001). **빈곤과 자립**. 서울 : 학지사.
- 송종두(1981). **청소년이론**. 대구 : 경북대학교출판부.



- 신선미(1996). **청소년카드 도입방안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어수봉(1992). **한국의 노동이동**.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 어윤배(1994). **복지국가와 중소기업**. 서울 : 책세상.
- 어윤배(1996). **사회정책의 이론과 과제**. 서울 : 숭실대학교 출판부.
- 이광호(2000). **“청소년 문화 읽기와 수련활동의 새로운 전략 모색”** 광주 대학교 청소년문화포럼자료집. pp. 1-15.
- 이두호 외(1991). **빈곤론**. 서울 : 나남출판사.
- 이병렬(2002). **스웨덴 · 영국 · 미국의 빈곤정책** 서울 : 양지.
- 이선(2000). **“지식기반사회를 향상 인력자원개발의 방향과 과제”** 제2차 KRIVET HRD 정책포럼자료집. pp.1-26.
- 이혜경(1994). **“사회변동과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현대사회와사회사업. 어윤배박사 회갑기념논문집. pp. 313-326.
- 임희섭(1979). **“한국에 있어서의 빈곤문제”**. 홍승직 외. 한국사회개발연구. 제1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장원섭 · 김형만 · 옥준필(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1) - 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 서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우현(1999). **한국의 고실업과 자유주의적 대응정책**.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 최일섭 · 최성재 공편(199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남출판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0) . **“청소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HRD전략”** 제 3차 KRIVET HRD 정책포럼자료집.
- 한국청소년개발원(1999a).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9b). **외국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서울 : 문화관광부.
- 한국청소년개발원(2000). **청소년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홍기선(2002). **인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 나남출판사.

- 小食囊二 (1962). *公的扶助*. 東京 : ミホルウア書房.
- 孝橋正一, 중앙사회복지연구회 역(1991). *현대자본주의와 사회사업*. 서울 . 이론과 실천.
- Albert, M. 김이랑 역(1994).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서울 . 소학사.
- Ball, S.(1981) *Beachside comprehensiv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hen, A. K (1955). *Delinquent Boys*. New York : Free Press.
- Johnson, N. (1987). *The Welfare State in Transition : The Theory and Practice of Welfare Pluralism*. Amherst : The University of Mass. Press.
- Lerner. R. M. (1994). "*Addressing the Problems of Youth Through the Promotion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 A Developmental Contextual Model*" 청소년 발달과 지역사회참여. 한국청소년개발원 '94 국제학술회의자료집, pp. 2-61.
- McLoyd, V. C & Wilson, L. (1992). "*The strain of living poor :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child mental health.*" In A. C. Huston(ed.), *Children in poverty :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pp. 105-135.
- Moon, J. D. (1988). "*The Moral Basis of the Democratic Welfare State,*" Chapter 2 in Gutmann (ed.), pp. 27~52.
- Peterson, N & Gonzalez, R. C. (2000). *The role of work in people's lives : applied career counseling and vocational psychology*. Belmont : Brooks/Cole Wadsworth.
- Sen, A. 이상호 · 이덕재 역(1999). *불평등의 재검토*. 서울 : 한올아카데미.
- Coles, B.(1995). *Youth and social policy*. London : UCL Press.
- Duncan, G., & Rogers, W. (1991). *Has children's poverty become more persist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pp.

538-550.

Duncan, G., Hill, M., & Hoffman, S. (1988). *Welfare dependence within and across generations*. Science. 239, pp. 467-471.

Galbraith, J.(1962). *The Affluent Society*. Harmondsworth : Penguin Book Ltd.

Gilbert, N. 김영화 · 임성옥 · 공정원 역(2001). *복지국가에서 능력개발국가로*. 서울 : 한울아카데미.

Hagen, J. W., Paul, B., Gibbs & Wolter, C. (1990). *Trend in research as reflected by publications in Child Development: 1930-1989*. in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Hannan, M. (1973).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poverty"* Perspectives on Poverty.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Havighurst, R. L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 David Mckay.

Hill, M. S & Sandfort. J. R. (1995). *"Effects of Childhood Poverty on Productivity Later in Life :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 pp. 91-126. <http://www.ed.gov/pubs/Compact>.

Levitan, S. A., Mangum, G. L & Mangum. S. L. 채구묵 역(1999).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서울 : 나남출판사.

Lynd, R. S & Hanson, A. C. (1993). *"The People as Consumers," in President's Research Committee on Social Trends*, Recent Social Trends in the United States. McGraw- Hill. pp. 857-911.

Hannan, M.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poverty"*, Perspectives on Poverty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3), pp.6-12.

Jonshon, N.(1987). *The Welfare State in Transition : The theory an practice*. CA : Brooks/Cole Publishing Co.

Maslow, A.(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Row.

- Midgley, J. 김영화 · 박태정 역(2003). *복지와 경제의 상생적 사회개발 -사회복지의 개발적 전망-*. 서울 : 양서원.
- Olson, L.(1997). *The school to work revolution*. reading : Addison-Wesley.
- Olsson, S. E. (1990). *Social Policy and Welfare State in Sweden*. Lund.
- Pepinsky, H.E.& Jesilow,P. 이태원역(2003).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 서울 : 한울아카데미.
- Pittman, K. J.(1996). *What is Youth Development : Preventing Problem of Promoting Development Competing Priorities or Inseparable Goals?*. <http://www.iyfnet.org/document.cfm/22/genera/51>.
- Powell, M(1963).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 The BobbsMerill Co., Inc.
- Rocheftor, D. A (1986). *American Social Welfare Policy . Dynamics of Formulation and Change*. Boulder, Colo : Westview Press.
- Schorr, L. B.(1988). *Within our reach : Breaking the cycle of disadvantage*. New York : Doubleday.
- Solow, R.(1998). *Work and Welfar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ownsed, P.(1974). *"Poverty as Relative Deprivation"*, in Wedderburn(eds.). *Poverty, Inequality and Class Structur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S. Department of Education.(1997). *A Compact for Learning : An Action Handbook for Family-School-Community Partnership*.
- Woods, P. 손직수 외역(1998). *학교사회학-상호작용론적 견해*. 서울 : 원미사.
- Zimbalist, S. E.(1977). *Historic Themes and Landmarks in Social Welfare Research* New York : Harper K. Row.

## 부 록

공 백

## [부록 1] 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실태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노혁입니다.

본 조사는 제가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과제인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방안’의 하나로 청소년자립지원 시설(센터)에 대한 실태를 이해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복지지향점인 참여복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 사회복지에서 자립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청소년의 자립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하는데 있어 다양한 복지지원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시설 책임자나 실무자 선생님께서 솔직하고 성실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의견은 연구의 목적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8월 25일(월)이전까지 우편이나 FAX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송우편을 동봉합니다.

2003 8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혁

TEL : (041) 570-7782(연구실), 011-9728-5799(개인휴대전화),  
(041) 570-7773(학과사무실 : 이지선조교) FAX : (041) 570-1481

※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과는 달리 9세부터 24세까지의 아동을 청소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거하여 여기서는 아동복지법에서 통상 지칭하는 9세에서 18세미만 아동을 청소년으로 명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항 중 해당되는 번호 앞의 ☐ 안에 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기본사항

### 1. 귀 시설(센터)의 법인 유형

- ☐ (1) 사회복지법인  
☐ (2) 재단법인  
☐ (3) 사단법인  
☐ (4) 기타

### 2. 청소년 현황

정원 (     )명, 현원 (     )명

| 구 분 | 고등학생 | 고 졸 이 상 |    | 합 계 |
|-----|------|---------|----|-----|
|     |      | 대학생     | 기타 |     |
| 인 원 |      |         |    |     |

### 3. 종사자 현황

법정직원수 (     )명, 현직원수 (     )명

| 종사자 | 사회<br>복지사 | 직업<br>교사 | 직업<br>상담사 | 생활<br>지도원 | 보육사 | 기타 | 합계 |
|-----|-----------|----------|-----------|-----------|-----|----|----|
| 인 원 |           |          |           |           |     |    |    |

### 4. 귀 시설(센터)은 아동복지시설과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 ☐ (1) 예  
☐ (2) 아니오



4-1 (1) 번 ‘예’에 답한 경우, 어떤 청소년들이 자립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 아동복지시설 퇴소준비 청소년, 지역사회 빈곤계층 청소년 등)

---



---



---



---



---

## II. 자립시설(센터)의 현황

1.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자립프로그램에 표기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1) 생활지원금 지원

(구체적 내용 :

---



---



---

☐ (2) 자영업 등을 위한 용자알선

(구체적 내용 :

---



---

☐ (3) 직업알선

(구체적 내용 :

---



---



---

☐ (4) 직업훈련(교육)

(구체적 내용 :

---



---



---

(5) 기타 (                      )

(구체적 내용 :

---



---



---

## 2. 자립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은?

### 1) 기준

(예 : 예산보조기관의 지침, 시설의 정관과 규정, 시설책임자와 실무자의 합의 등)

---



---



---

### 2) 방법

(예 : 기존 프로그램의 채택 및 수정, 새로운 프로그램의 구성 등)

3. 향후(3년 이내) 실시예정인 자립프로그램은 ?

4. 자립지원시설(센터) 운영의 문제점은?

- ☐ (1) 독립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 ☐ (2) 재정적 자원의 미비
- ☐ (3) 사회적(지역사회 등) 인식 부족
- ☐ (4) 전문인력의 미확보
- ☐ (5) 기타 ( )

5. 자립프로그램 계획과 구성의 애로점은?

- ☐ (1) 참여청소년 수효예측의 어려움
- ☐ (2) 전문인력의 부족
- ☐ (3) 사회의 이해 부족(프로그램참여 청소년에 대한 혜택 미약 등)
- ☐ (4) 예산 조달의 어려움
- ☐ (5) 기타 ( )

6. 자립지원시설(센터) 퇴소 청소년의 사후관리 방법은 ?

- ☐ (1)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연락
- ☐ (2) 관계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행사개최
- ☐ (3) 사후관리담당직원을 통한 계속적 관리
- ☐ (4) 기타 ( )

7. 자립시설(센터) 청소년이 자립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

☐ (1) 경제적 지원

(구체적 내용 :

---



---



---

☐ (2) 사회적 지원

(구체적 내용 :

---



---



---

☐ (3) 직업적 지원

(구체적 내용 :

---



---



---

☐ (4) 문화적 지원

(구체적 내용 :

---



---



---

☐ (5) 심리적 지원

(구체적 내용 :

---



---



---

☐ (6) 기타

(구체적 내용 :

8. 자립시설(센터) 퇴소 청소년 사후관리를 위한 실행중이거나 계획 중인 별도의 방안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Ⅲ. 자립지원시설(센터) 청소년 (다음은 자립지원시설에 함께 참여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의견을 취합해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청소년 자립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

☐ (1) 직업기술

☐ (2) 사회적응기술

☐ (3) 금전적 자원

☐ (4) 직업 관련정보

☐ (5) 직업알선

☐ (6) 기타 ( )

2. 현행 자립시설(센터) 프로그램 중 강화 또는 추가되어야 할 프로그램은?

☐ (1) 직업기술

- ☐ (2) 사회적응기술
- ☐ (3) 금전적 지원
- ☐ (4) 직업 관련정보
- ☐ (5) 직업알선
- ☐ (6) 기타 (                      )

3.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이 훈련받거나 취업하고 싶어하는 직업군은?

- ☐ (1) 제조업  
☐ (2) 컴퓨터 IT 산업  
☐ (3) 서비스업  
☐ (4)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사 등)  
☐ (5) 사무직  
☐ (6) 자영업  
☐ (7) 기타 ( )

4. 시설 또는 센터에서 실행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 중 청소년이 가장 만족해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또는 형태는?

---

---

---

---

---

## 5. 청소년들이 자립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것은?

(예 : 가정의 안정, 생활보조금의 지원, 교육기회의 확대 등)

---



---



---



---



---

## IV. 자립프로그램 이수 결과

다음은 최근 3년간(3년 이내의 설립 시설은 운영기간 동안) 자립시설(센터)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의 사회적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수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적어주십시오.

1. 주 취업 업종 : (예 : 제조업, 서비스업 등 %로 표기)
  
2. 자영업 대 취업비율 : 자영업(     ) %, 취업(     )%
  
3. 평균 재직 지속률(한 직업 또는 직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비율)

## V. 자립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 견해(구체적으로)

1. 국가에서 자립지원시설(센터)에 대한 지원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1)

2)

3)

2. 국가가 자립시설(센터) 청소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하여야 할 복지지원방안 3가지만 제시해주십시오.

1)

2)

3)

3. 사회복지실천의 측면에서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방안을 3가지를 선택하여 순위를 적어주십시오



☐ (1) 경제적 지원

☐ (2) 사회적 지원

☐ (3) 문화적 지원

☐ (4) 심리적 지원

☐ (5) 정서적 지원

3-1. 위에 적은 것 외에도 다른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1)

---



---



---

2)

---



---



---

3)

---



---



---

4 자립지원시설(센터)에 대한 법과 제도에 관한 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 주십시오.

5. 조사내용 외에도 생각하는 자립지원시설(센터) 개선방안과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정책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1)

---



---



---

---

 2)
 

---



---



---

 3)
 

---



---



---

## VI. 응답자 인적사항

### 1. 귀하의 성별

☐ 남

☐ 여

### 2. 귀하의 연령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3. 시설(센터) 내에서의 직위

※ 자립지원시설(센터) 운영과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참고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청소년 자립지원시설(센터) 일람표

| 종류      | 명칭            | 시설장<br>(법인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
| 1<br>시설 | 청운자립생활관       | 유무근<br>(청운종합<br>복지원)            | 서울<br>동작구<br>상도3동<br>290        | (02) 823-3365  |    |
| 2<br>시설 | 상록여자자립생활관     | 부청하<br>(상록원)                    | 서울<br>관악구<br>남현동<br>1083-29     | (02) 588-7907  |    |
| 3<br>시설 | 돈보스꼬자립생활관     | 황복만<br>(한국청주<br>교<br>살레시오<br>회) | 서울<br>영등포구<br>신길6동<br>4491      | (02) 833-4010  |    |
| 4<br>시설 | 장선자립청소년의 집    | 이은삼<br>(장선종합<br>복지공동<br>체)      | 부산광역시<br>북구<br>구포3동<br>1255-2   | (051) 336-7001 |    |
| 5<br>시설 | 삼덕동SOS 자립생활관  | 김하수<br>(한국SOS<br>어린이마<br>을)     | 대구광역시<br>중구<br>삼덕동1가<br>149-32  | (053) 427-9659 |    |
| 6<br>시설 | 검사동 SOS 자립생활관 | 장효원<br>(한국 SOS<br>어린이마<br>을)    | 대구광역시<br>동구<br>검사동<br>913-1     | (053) 982-9936 |    |
| 7<br>시설 | 무등자립생활관       | 김상선<br>(무등학원)                   | 광주광역시<br>동구<br>운림동 872          | (062) 222-3762 |    |
| 8<br>시설 | 인애자립생활관       | 이남순<br>(인애원)                    | 대전광역시<br>유성구<br>노은동<br>231-3    | (042) 823-8888 |    |
| 9<br>시설 | 현양자립생활관       | 김명성<br>(충북현양<br>복지재단)           | 충북<br>청주시<br>흥덕구<br>신봉동<br>32-1 | (043) 266-7113 |    |

| 종류       | 명칭           | 시설장<br>(법인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
| 10<br>시설 | 충청남도 향립자립생활관 | 최병운<br>(향립원)       | 충남<br>금산군<br>추부면<br>마전리<br>761-7                  | (041) 753-5319  |    |
| 11<br>시설 | 삼성자립생활관      | 김인숙<br>(삼성원)       | 전북<br>전주시<br>완산구<br>효자동<br>3가<br>1113-1           | (062) 221-7001  |    |
| 12<br>시설 | 아동자립생활관      | 이상해<br>(목포아동<br>원) | 전남<br>목포시<br>용해동<br>671                           | (061) 276-0078  |    |
| 13<br>시설 | 진우청소년자립생활관   | 위제하<br>(진우원)       | 경남<br>김해시<br>진영읍<br>신용리<br>634-1                  | (055) 342 -2165 |    |
| 14<br>센터 | 서울자립지원센터     |                    | 서울<br>마포구<br>도화동<br>173(삼창<br>프라자빌<br>딩<br>1309호) | (02) 712-1440   |    |
| 15<br>센터 | 부산자립지원센터     |                    | 부산광역시.<br>동래구<br>사직2동<br>594-8                    | (051) 505 -9710 |    |
| 16<br>센터 | 대구자립지원센터     |                    | 대구광역시<br>시 중구<br>포정동<br>75-4                      | (053) 423-8492  |    |
| 17<br>센터 | 인천자립지원센터     |                    | 인천광역시<br>시 남구<br>송의1동<br>137                      | (032) 882-7753  |    |

| 종류       | 명칭       | 시설장<br>(법인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
| 18<br>센터 | 광주자립지원센터 |              | 광주광역시 동구<br>장동<br>58-67(3층)                     | (062) 223-0255  |    |
| 19<br>센터 | 대전자립지원센터 |              | 대전광역시 대덕구<br>연축동<br>269(성우<br>보육원<br>내)         | (042) 636-5727  |    |
| 20<br>센터 | 경기자립지원센터 |              | 경기도 수원시<br>권선구<br>고등동 산<br>42-98<br>(교육회관<br>내) | (031) 252-3060  |    |
| 21<br>센터 | 강원자립지원센터 |              | 강원도 화천군<br>화남면<br>위라리                           | (033) 442-2175  |    |
| 22<br>센터 | 제주자립지원센터 |              | 제주시<br>도련1동<br>2043-1<br>(홍익보육<br>원 내)          | ①(064) 755-0844 |    |

공 백

##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03-R01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맹영임 · 구정화)
- 03-R02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  
-청소년 음식문화와 소비-(조혜영 · 김선아)
- 03-R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I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 · 조아미 ·  
백지숙 · 유혜림)
- 03-R04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 -정책제안 요약집-(임지연)
- 03-R05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실태연구(이종원 · 유승호)
- 03-R06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김정주 · 김용대 · 성기원)
- 03-R07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황진구 · 권태희)
- 03-R08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최원기 · 전명기 · 이주연)
- 03-R09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전경숙 · 노재봉)
- 03-R1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폭력 대책 연구  
(이민희 · 임영식 · 이진숙)
- 03-R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길은배 · 문성호)
- 03-R12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우정자 · 김은경 · 김형주)
- 03-R1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 이용교 · 김세진)

- 03-R14 청소년 정보소의 실태 조사 연구(김경준·최선희)
- 03-R1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조사개요보고서  
(이경상·김진호·오해섭·김희진)
- 03-R16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과 함양방안 연구(김선미·남경희)
- 03-R17 가족복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 모색(방은령)
- 03-R18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정책적 함의(문성호)
- 03-R19 지방정부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영호)
- 03-R20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유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통제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김희화)
- 03-R21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방향성 탐구(최동선)
- 03-R22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이성식)
- 03-R2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노혁)
- 03-R24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전신현)
- 03-R25 폭주청소년의 위협행동과 예방에 관한 연구(김문섭)
- 03-R26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문성원)
- 03-R27 부모를 위한 청소년지도 가이드(신인순 외)
- 03-R28 한·중·일 청소년 정책비교 연구(이종원)
- 03-R29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연구(김선미)
- 03-R30 2003전국청소년 자원봉사 주관사업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1 2003 대한민국 청소년봉사상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2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보고서(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3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메뉴얼(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4 일본자원봉사 지원센터 활동사례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5 한중정책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6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수립 공청회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7 청소년 삶의 질 향상 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8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김영한 · 서정아)
- 03-R39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재분 · 박효정 · 현주)
- 03-R40 일탈 · 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김은경 · 이동원)
- 03-R41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손유미 · 김상호 · 조정아)
- 03-R42 귀국 및 탈북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조한범 · 이금순 · 이우영 · 전효관)
- 03-R4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춘화 · 윤옥경)
- 03-R44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 비용산정에 관한 연구  
(김영한 · 김진호 · 김갑성)
- 03-R4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길은배 · 한만길 · 최영표 · 강영혜 · 오해섭 · 김학성)
- 03-R46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이경상 · 조혜영 · 박창남)
- 03-R47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교육시설 특성화방안  
(김정주 · 김진호 · 소병조)
- 03-R48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이종원 · 이경상 · 김종길)

- 03-R49 청소년 책읽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춘화·서정아·김상헌)
- 03-R50 선진국형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김영지·전경숙·김민)
- 03-R51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9회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집 모음집-  
(황진구·강명숙·임지수)
- 03-R52 2003특성화 수련거리개발 [3]-청소년마을체험  
(윤철경·이은경)
- 03-R53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6]-국제언어캠프  
(김선미·김호숙)
- 03-R54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7]-환경음식만들기  
(서정아·최경학)
- 03-R55 청소년 단체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맹영임·  
이광호·김민·임연희)
- 03-R56 연령대별 외국청소년 정책비교 및 정책 대안(윤철경·이상오·  
황성하·서수경)
- 03-R57 청소년 개발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김진호·송병국·  
임영식·김진화·오해섭·윤명희·정효진)
- 03-R58 선진 각 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우정자·  
김문섭·최종혁)
- 03-R59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함병수·임지연·김종두)
- 03-R60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혜영·최원기·임지연)
- 03-R61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황진구·김경준·이춘화·최창욱)
- 03-R62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연구(김경준·함병수·  
김영한·최창욱)

연구보고 03-R 23

---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

---

인 쇄 2003년 12월 15일

발 행 2003년 12월 15일

발 행 처 :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 행 인 : 권 이 중

등 록 :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 (주)계문사 TEL. (02)725-5216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2)2188-8877(자료실)

ISBN 89-7816-485-4(93330)

공 백

#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

- 자립지원시설 실태를 중심으로 -

연구자 : 노 혁 (나사렛대학교 교수)

한국청소년개발원

공 백

## 연구 요약

###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빈곤계층 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해 적용가능하고 효율적인 자립지원정책의 방향과 시대환경에 적합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반 청소년의 자립능력 제고 방안 모색에 함의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자립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능력개발 방법을 조망하고자 하는데 있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문헌과 실태 중심의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빈곤계층 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들 청소년의 자립능력 개발에 따른 복지적 관점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대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빈곤계층 청소년에 대한 면담을 통해 그들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빈곤계층 청소년과 관련된 실제적 자립지원정책 프로그램인 자립지원시설의 실태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에 필요한 복지지원 요소들을 도출하여 현실에 적합한 자립능력개발 복지지원 정책을 방향과 방안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둔다.

### 3. 연구 결과

#### 1) 면접조사결과

첫째, 그들은 빈곤으로 인해 겪는 고통 못지않게 정서와 사회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더 힘들어하고, 사회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둘째, 그들은 대체로 기능적으로 결손 가정 내에 생활하고 있었으며 가족성원으로부터 심리, 정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 친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할 자원이 부족하였고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 생활을 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셋째, 빈곤계층 청소년 중 적지 않은 숫자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빈곤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데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

#### 2) 자립지원시설 실태조사결과

첫째, 조사대상 20개 자립시설 중 13개 시설이 조사에 응하였다. 이 중 3개 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응답하고, 대체로 질문에 응답한 자립시설 10개도 문항에 따라서 응답을 누락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많았다. 자립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그리 큰 어려움이 없으나, 조사지에 응답한 시설은 60%만 편제정원을 채우는 형편으로 전체적인 자립시설의 구조와 운영체계의 부실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현재 자립지원시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직업훈련과 알선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상담사업도 병행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 아동복지시설과 연계된 자립지원시설로서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시



설은 재정적 곤란과 함께 시설에 대한 사회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설이용 청소년 수급의 문제와 전문 인력의 미확보도 자립지원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자립지원시설 청소년이 자립하는 데에는 경제적 지원 중 생계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자립과 관련해서는 금전적 지원 못지않게 사회적응 기술 훈련 등 사회성원으로서의 역할 능력함양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립지원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의 경우 가장 많이 취업한 직종이 제조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비스업, 사무직 순서였다. 또한 이들 취업청소년 중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 자립지원시설 퇴소 후에 사후관리체계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가가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해 자립지원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내용은 운영비와 시설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도 생활지도와 상담 등 전문 인력의 배치와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 4. 정책 반영 및 제언

##### 1) 간접지원

사회의 노동인력으로서의 정당한 대우 및 자립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자립환경의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

##### 2) 직접지원 : 정책적 제언

###### (1) 청소년 수당

아동의 복지수당을 일정연령까지 연장하거나 복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동수당의 신설과 함께 특수한 청소년을 위한 수당제도의 도입이 조심스럽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 (2) 진로지도와 직업훈련

첨단산업분야의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는 직업훈련기관과 기업체에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탁 교육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아울러 빈곤계층 청소년의 실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영상과 미용 등 창의적인 틈새직종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 (3) 도제식 교육프로그램과 자영업 지원

도제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순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계층 청소년들이 한 분야의 숙련자와의 만남을 통해 인간적인 성숙을 도모하고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수련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등 다목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 (4) 청소년카드제 도입

청소년에게 할인카드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게 하고 빈곤계층 청소년에게는 동일카드를 최소한의 가격 또는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문제도 적지 않겠지만, 정책과 민간단체의 청소년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좋은 결실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정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지원해주며, 빈곤계층 청소년에게 사회적 참여를 통해 사회윤리를 내면화하여 친사회적 문화를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 목 차

|                                      |     |
|--------------------------------------|-----|
| I. 서 론 .....                         | 1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 3   |
| 2. 연구 내용 .....                       | 6   |
| 3. 연구 방법 및 한계 .....                  | 7   |
| II. 이론적 배경 .....                     | 9   |
| 1. 청소년과 빈곤 .....                     | 11  |
| 2. 빈곤계층 청소년의 개념과 특징 .....            | 16  |
| 3. 빈곤계층 청소년의 생활실태 .....              | 27  |
| 4. 빈곤계층 청소년과 자립능력개발 .....            | 38  |
| III.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실태 조사 분석 ..... | 55  |
| 1. 조사 내용 및 방법 .....                  | 57  |
| 2. 조사결과분석 .....                      | 58  |
| IV.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            | 73  |
| 1.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            | 75  |
| 2. 자립지원체계 .....                      | 78  |
| 3.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정책제언 .....        | 88  |
| V. 결 론 .....                         | 105 |
| 부 록 .....                            | 117 |

## 표 차 례

|                                   |    |
|-----------------------------------|----|
| <표 II-1> 200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   | 17 |
| <표 III-1> 청소년현황 .....             | 58 |
| <표 III-2> 종사자현황 .....             | 58 |
| <표 IV-1> 욕구에 대한 자립능력개발 대응형태 ..... | 89 |

## 그 립 차 례

|                                     |    |
|-------------------------------------|----|
| [그림 III-1] 시설의 법인 유형 .....          | 59 |
| [그림 III-2] 아동복지시설 포함 여부 .....       | 59 |
| [그림 III-3] 시설운영의 문제점 .....          | 61 |
| [그림 III-4] 프로그램 계획과 구성의 장애 .....    | 62 |
| [그림 III-5] 퇴소 청소년 사후 관리 방법 .....    | 63 |
| [그림 III-6]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요소 .....     | 65 |
| [그림 III-7] 강화해야 할 시설 프로그램 .....     | 66 |
| [그림 III-8] 훈련 또는 취업하고 싶은 직업군 .....  | 66 |
| [그림 III-9] 청소년 자립을 위한 복지지원 .....    | 69 |
| [그림 IV-1] 자립능력 개발순환과정 .....         | 77 |
| [그림 IV-2] 빈곤계층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체계 ..... | 81 |